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제 691390호

Thursday, September 25 2025 A

'핵동결=핵중단' 의문, "北 기만 전술 말려들 수도"

E.N.D 북한 반발 의식해 잘못된용어 사용했을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 연설에 서 '중단→축소→폐기'로 구성된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재차 강조했으나, 정 부는 비핵화 로드맵의 1단계를 지칭하 는용어를 동결·중단·중지 등으로 구분 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어, 북한이 이런 용어의 혼선을 파고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일본 요미우 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처음 으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때 ' 핵·미사일 동결→축소→비핵화'로 구 성된 3단계 구상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1단계에서 사용한 동결이 '현재의 핵'을 용인한다는 의미 로도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우려는 지난 30여년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등 동결 을 내세워 시간을 벌며 사실은 약속을 위반하는 양상을 반복한 것과 무관치 않다. 동결 뒤 섣부른 보상은 결국 핵 보 유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북한이 2022년 공개한 화성17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핵을 탑재하고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오는 이유다. 과거 핵 협상에서 북한 은 영변 원자로 스위치 하나만 끄는 것 도 동결로 부르곤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인터뷰 하루 뒤인 지난달 22일 기자간 담회에서 "북한 핵의 중요한 부분을 스 톱시키고, 축소시키고 비핵화한다는 말"이라며 "그접근이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볼수없다"고말했다.

그러나 지난 16일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 제」에선 또다시 '동결'이란 단어가 등 장했다.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는 '중단'이란 표현이 사용됐다.

'비핵화 로드맵 1단계에서 사용하 는 용어인 동결과 멈춤·중단의 차이'를

묻는 본지 질의에 북핵 문제 주무부처 인 외교부와 통일부는 "북한의 핵·미사 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을 멈추는 것 이 단계적 비핵화의 첫걸음이라는 취 지"라며 뭉뚱그려 답변을 내놨다. 사실 상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

해당 사안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동 결·멈춤·정지라는 세 가지 단어의 의미 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발언을 따라가 지만, 현재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한 내 부 문건에는 '동결'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위 실장은 이날 뉴욕 프레 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에는 동결도 사용했지만, 지난달 미국 순방 길 기내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 럼 중단이 더 맞는 표현이라 그때부터 중단으로쓰고있다"며 "중단이라고할 때는 핵·미사일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스톱(멈춤)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북핵 전문가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베테랑 외교관 출신인 위 실장이 동결이란 용어가 가

진 함의를 모를 리 없다"며 "그간 비핵 화 협상에서는 잘 쓰지 않던 '멈춤·중 단'이라는 생경한 단어를 사용한 건 '동 결'을쓸경우나올수있는우려를의식 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핵화 표현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 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혼 용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한 미 일 외교장관 회의와 관련한 별도의 보 도자료에서 "3국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작 문서화한 결과물인 3국 외교장관 공 동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썼는데, 굳이 '한반도비핵화'로 표현한 것이다.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 핵화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 고 입장을 밝히며 정리에 나섰다.

그러나 외교부의 이런 용어 선택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크 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 다. 익명을 원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 원은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이재명 정 부의 복잡한 속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정영교·심석용 기자

AI "일자리 습격" 본격화···청년층 큰 타격

인공지능(AI)이 상상을 뛰어 넘을 정 도로 빠른 확산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상실' '일자리 멸종' 위협이 수 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청년층 고 용 지형에 급변화를 일으켜 관심이 쏠 린다. 최근 스탠퍼드대학이 발표한 보 고서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5년 현재 까지 인공지능과 관련 22-25세 청년층 의 고용이 13%나 줄어들었다.

직장 분야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계, 고객서비스 등 자동화 가능성이 짙은 업종에서 감소가 확연히 나타났 다. 청년층을 벗어난 성인층에서도 금 융, 의료, 법률 등의 전문직 일자리도 AI로 위험해 질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5년 내 전체 엔트리 레벨 지식 근로자의 56% 정도가 AI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을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스탠퍼드대학의 이번 보고서는 글로 벌 관리기업인 ADP의 종합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다.

연방 노동통계국은 8월 전국의 실업 률은 4.3%를 기록했는 데, 이 중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25%나 된다며 일자 리를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과 관련 한 경제전문가는 "AI가 일정 부문 직종을 빠르게 대체하 면서 젊은층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AI 기술 발전이 청년층은 물론이고 성인층 등 사회 전 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한 기자

IMF "한국 부채 급증"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에서 고 했다. 령화가 가장 빠른 한국에 "장기적인 재 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IMF는 24일 한국과 연례협의 보고 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 는 한편 향후 고령화와 관련한 지출 압 력을 수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개 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신뢰 가능한 중기적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 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재정 앵커는 나랏빚을 미리 정한 비 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과 비 슷한 개념이다.

즉, IMF는 우리나라에 '앞으로 3~5 년 이상의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국가 부채나 재정 적자 등에 구체적 목 표를 걸어두라'고 권고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을 60% 이내, 재정 적자 비율 을 -3% 이내로 관리하길 바란다.

>> 2면 '한국 부채 급증'로 이어집니다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WWW.UMNLOAN.COM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5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Lender Licensed States (VA, MD, DC,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CEO Sean H Yio NMLS #: 262952 / M.B.A., MS Finance NMLS#: 2425871 (회사) **GA** Duluth Office

Duluth, GA 20096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트럼프탑승 에스컬레이터 돌연 멈춤

비밀경호국조사착수

미국 비밀경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 부부가 유엔총회장에 입장하던 중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 선 일 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영국 더타임스와 미국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총회장 에스컬레이터는 멜라니아 여사가 발을 딛는 순간 멈췄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은 정지된 계단을 직접 걸어 올라가야 했다.

사건 직후 유엔 직원들이 에스컬레이터 전원을 일부러 끄자는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의 적방해'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선데이타임스는 유엔 내부에서 '예산 삭감으로 돈이 떨어져 에스컬레 이터를 가동할 수 없으니 직접 걸어 올 라가게 하자'는 식의 농담이 오갔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엑스(X)에 "유엔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고의로 멈췄다면 즉시 해고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 "주말 동안 런던의 타임스에서 보도 된 내용은 미국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 리려는 음모를 의심케 한다"며 "모든 정황을 종합할 때 단순한 우연으로 보 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밀경 호국이 철저히 조사 중이며 만약 고의 성이 드러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엔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사고 원인이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도착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미국 측 촬영기자가 먼저 에스컬레이터에 올랐고 바로 그 순간 영부인이 발을 디디자 안전장치가 작동해 멈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계 중앙처리장치(CPU) 기록을 확인한 결과, 상단 안전장치가 작동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물체가 끼어드는 사고를 막기 위해 설계된 장치로, 촬영 담당자가 의도치 않게 이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VA 주지사 전력도매회사에 전기요금 인하 촉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미국 최대의 전력 도매시장 운영사인 'PJM 인터커넥션'에 대해 전력 가격을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영킨 주지사는 11개 주지사와 연대 해 전력 경매에 참여하는 발전소 수 를 늘려 가격 결정에 사용하는 가용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 해 전기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 했다. PJM은 권역별 전력·송전 기업 의 연합체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13개 주와 워싱턴DC에 전기를 공 급한다. 이 기관은 매년 한 차례 경매 를 통해 향후 필요한 발전소 전력 용 량을 확보한 뒤 이를 전기요금에 반 영한다.

최근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일면서 신규 송전망 건설 등이 필요해 전력 생산 비용이 증가해 일반 가정의 전 기요금 인상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CDC 동부해안 '살먹는 바이러스' 경고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2019-2023년 동부해안 지역에 살 먹는 박테리아로 알려진 항생제 내성균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살 먹는 박테리아로 알려진 '에어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Aeromonas hydrophila)에 감염되면 괴사 현상이 나타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지난 7월에도 메릴랜드 애나폴리 스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이 세균에 감염돼 피부괴사로 인해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 남성은 최근 해당 부위의 괴사

로 인해 피부이식 수술을 받은 것 으로 알려졌다. 기저 질환이 있거 나 면역력이 약한 경우, 몸에 상처 가 난상태에서 입수하는 것을 주의 해야 한다. 에어로모나스 하이드로 필라 같은 박테리아는 워싱턴 지역 의 민물과 바닷물에서 흔히 발견된 다. 피부감염 뿐만 아니라 설사 등 을일으키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 기도 한다.

당국에서는 몸에 상처가 있을 경우 체사픽만 일대에 들어가지 말고, 만약 접촉했을 경우 즉시 비누와 깨 곳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VA와 MD·DC 코로나백신 접종 조건 달라

메릴랜드와 워싱턴DC는 3세 이상 연령대의 모든 주민이 사실상 아무 런 제한없이 약국 등에서 코로바이 러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하지만 버지니아는 65세 이상 주

민에게만 제한 없는 접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18-64세 주민은 기저질환이 있다고 스스로 증명해야만 접종이 가능하다. 당뇨 환자와 흡연자 등도 접종할 수 있다. 김옥채기자

전문직 H-1B비자 추첨 고임금자 우대

연방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가 운데, 추첨 방식을 고임금-고숙련 근로 자에게 더 많은 추첨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발표 한 H1-B 비자 개편안에 따르면, 특정 연도에 비자 신청이 쿼터를 초과할 경 우, 임금 수준별 구간을 만들어 고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우선 선정하게 된다.

H-1B 비자는 주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쿼터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지만매년 발급 상한을 초과했었다. 올해 3월 마감한 최근 H-1B 비자 추첨 등록에는 약 33만9000명이 신청해이 중 12만141명이 선발됐다.

현재 H-1B 비자 신청 기회는 무작위 밝혔다.

로 배정된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은 무작위 추첨 대신 더 높은 임금과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중치를 둔다.

지원자를 4개 임금 구간으로 나눠 가장 높은 임금 수준에는 네 차례, 가 장 낮은 임금 수준에는 한 차례의 추첨 기회만 제공하게 된다.

이 규정은 이민시민권국(USCIS)이 앞으로 30일간 관보 게재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6년도 비자 추 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이 제도에 대해 "고용주들이 H-1B 근로자에게 고임금·고숙련 직책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저임금·저숙련 직무를 채우기 위한 광범위한 활용을 억제할 것"이라며 가중치 방식이 원래 비자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수수료 인상 배경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를 이용해 보 다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들여 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일시적으로 노동자를 데려와 고숙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마련됐으나, 미국 노동자를 보완하기보다 저임금, 저숙련 노동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악용됐다"며 "체계적 남용을 통해 미국 노동자를 대규모로 대체한 것은 경제 및 국가 안보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H-1B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임금 이 2026 회계연도 5억200만 달러, 2027 년 10억 달러, 2028년 15억 달러, 2029-2035년 연 2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윤미기자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 1면 '한국 부채 급증'에서 이어집니다

기획재정부 주세에 따드면, 우리나다 가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올해 말 49.1%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은 10년 뒤 71.5%까지 뛰고, 40년 뒤인 2065년에는 156.3%까지 상승한다.

IMF의 경고는 확장 재정 기조속에서 급증하는 국가부채를 대수롭지 않게 여 기는 한국정부의 기조와 대비된다.

차고 1, 방 1, 화 1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취임 100일 기 자회견에서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 로 중요하지 않다"며 "국채를 발행하 면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0%를 약간 넘는 정도가 될 것인데, 다 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했다.

IMF는 이날 보고서에서 잠재성장 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 도수차례 강조했다

차고 2, 방 3, 화 3½







차고 2, 방 3, 화 2.2



중앙일보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오징어게임장기밀매? 중국에서는 실제 상황"

전세계 인권단체들 "중국, 정치범 수용자 장기 적출 밀매" 중국 "정부 차원 강제 장기 적출 없다"

중국에서는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장기매 매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보도 가 잇따르고 있다.

해외언론들은 '오징어 게임'에서 살 인게임 관리자들이 장기매매에 가담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중국에서는 실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보도했다.

영국데일리메일, 더 선 등 외신은 유 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에서는 장기적 출 밀매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이 걸 린 서바이벌 게임을 담은 이야기로, 게 임 탈락자들은 즉시 사살돼 화장되는 데, 일부 게임 진행요원들이 시신에서 장기를 적출해 밀매업자에게 팔았다.

데일리메일은 "중국의 현실에서는 직접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 진핑 주석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장기이식으로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대화를 나눈 사실 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서는 고위직 인 사의 150세 수명을 위한 기관이 있다 는 말까지 돌고 있다. 최근 중국 원로들 수명이 갑자기 늘어나고 유독 중국에 서 실종사건이 많다는 점, 파룬궁 신도 와 신장자치구의 위구르족 등의 사형

수를 이용해 장기이식으로 수명을 늘 리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중국 인권 단체들은 중국정부가 매 년 10만명의 반체제 인사와 정치범의 장기를 적출하는 장기 밀매 네트워크 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전세계 인권단체들도 중국을 상대 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매년 10만명의 반체제인사 및 정치범 수용자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해 밀 매하는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OHCHR는 1년간 목격자 증언을 조 사한 결과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 신도. 위구르족·이슬람교도 등 소수민족 구 금자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다는 정 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장기 적출 대상자는 정치·종교적 신 념을 버리지 않는 수감자들로, 당은 이 들의 동의 없이 혈액 채취·초음파·엑스 레이를 찍고, 그결과를 생체 정보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장기이식 수술 주문이 들어오면 언 제든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관리한 다는 것이다. 수감자로부터 적출되는 가장 흔한 장기는 심장과 신장, 간, 각 막이며 장기 적출에 외과 의사와 마취 과 의사 등이 동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수감자들에 게서 강제로 떼어낸 장기를 팔아 연간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다"고 주장했 다.하지만 중국정부는 "정부 차원의 강 제 장기 적출은 없다"면서 "유엔 보고 서는 조작됐으며 목격자들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VA 조기투표 공화당 유권자 참여 더 많아

버지니아 전역에서 11월4일 주지사와 부지사, 검찰총장, 주하원의원 등의 총 선거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조기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공화당 유권자의 참여 율이 더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버지니아 퍼블릭 엑서스 프로젝트가 20개 하원의원 선거구를 대 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1개 선 거구에서 공화당 지지 성향 유권자의 조기투표참여가 더 많았다.

24일 현재 조기투표 참여자 3만5224 명중우편투표는 1천명 미만이었다.

주로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이 현장투 표를 선호하면서 공화당 유권자들의 참 여율이 높았다.

마크 피크 버지니아 공화당 의장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공화당 유권자들의 조기투표 참여율이 급속히 늘었다"고밝혔다. 김윤미 기자

멜라니아 옆 비어있던 '한국' 자리 "좋은 외교기회였는데 아쉬워" 지적도

김 여사는 멜라니아 주최 행사 참석 대통령실 "총회 방청계획 없었다 멜라니아 옆자리 배치 처음 들어"

23일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에스컬레이터가 멈 춰선 것을 언급하며 "영부인이 건강하 지 않았다면 넘어졌을 텐데 다행히 그 녀는 건강하다"고 말하자 전 세계 카메 라는 멜라니아 여사를 비췄다.

그런데 카메라엔 멜라니아 여사 오 른쪽 옆에 있는 '한국'이라는 표식이 붙은 빈 의자가 함께 잡혔다. 이재명 대 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위해 마 련된 자리로 추정된다. 각국 정상의 배 우자들은 유엔총회 연설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관례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멜라니아 여사 가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했다. 영부인들의 친교 의 자리였다. 김 여사는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APEC 정상회 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재회하기 를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리셉션이 오후 1시30분에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김 여사는 처음부터 유엔총회 방청 계획 이 없었다"며 "멜라니아 여사 옆자리 에 김 여사의 자리가 마련됐다는 얘기

도처음듣는다"고말했다.

김 여사뿐 아니라 우루과이 리투아 니아 등 다른 나라 영부인들도 이날 유 엔총회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멜라니아 여사 옆에 배치된 김 여사의 좌석과 관련해 외교가에선 "개인적인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 정부에서 '여사 외교'를 시도해볼 기회 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외교의 핵심이 의전 이란 점에서 한국을 미국의 옆자리에 배치한 것엔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 다"고말했다.

강태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배우자인 멜라니아 여사가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라고 쓰인 옆 자리가 비어 있다

30세 미만 젊은 여성 '무자녀' 선호

뉴햄프셔대학 연구 경제적 요건이 문제

젊은 여성 상당수가 무자녀를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뉴햄프셔대학 카시 공공정책대 학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 년 출산 적령기 여성의 무자녀 수가 예 상보다 570만 명 더 많았다. 이는 2016 년 210만명, 2022년 470만명보다증가 한 수치다. 공공정책대학원은 지난 17 년 동안 출산율이 약 1200만 명이나 줄 었다고 밝혔다.

특히 30세 미만 여성의 무자녀 비율 이 가장 크게 늘었는 데, 2024년에는 20-39세 여성이 2006년보다 400만 명 더 많았지만, 출산한 여성은 700만 명 줄었다.

공공정책대학원의 이번 조사와 연 구는 연방 인구조사국의 데이터와 국 립건강통계센터의 출생 수치를 분석했 는데,데이터에의하면2007년후반부 터 2009년 중반의 출산 패턴이 지속되 었다면 20-39세 여성 중약 25% 더 많 은 수(440만명)가 2024년에 두 명 이상 의 자녀를 낳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15%에 달하는 130만 명의 한 명의 자녀를 낳았을 것으로 가정하면 모두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 여성이 570만 명에 이르는 데, 실제로는 아이 를 갖지 못했다.

젊은 여성에 비해 35-49세 사이 여 성의 출산율은 약간 늘었지만, 이 증가 폭은 젊은 여성의 무자녀 추세를 능가 할만큼 크지 않았다.

상당수 여성이 아이를 갖지 않는데 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 택 비용의 급격한 증가, 자녀 양육비의 증가, 육아 및 가족 휴가에 대한 접근 성 제한, 결혼율 감소, 여성의 교육 및 취업 기회 확대 등이 주요 문제로 꼽히 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무자녀 여성이 증가하는 건 주거 불안정, 직장 불안정 등 경제적 요건과 맞물려 있다 고설명했다. 김성한 기자













GOLFZON

네트워크 플레이 (Network Play)

전 세계 수천 명과 실시간 대결! 인도어 골프 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경험하세요.

제로 레이턴시

(Zero Latency)

<u>즉각적인 피드</u>백과 끊김 없는 플레이로 실제 코스 같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모션 플레이트

실제 잔디 라이(Lie)를 그대로 구현해, 진짜 같은 샷으로 차별화된 실력을 발휘하세요.

오토 티

(Auto-Tee)

자동 티업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라운드를 시작하세요.

WELCOME TOWOW

한국에서 가장 친숙한 골프 브랜드 이제 미국에서도 만나보시죠 압도적인 기술력, 골프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품 및 사업 문의:

Tel (**한국어 전용**): 571-388-1877 Email: salesusa@golfzon.com

8개월간 떠난 불체자 200만명

DHS, 트럼프 취임 후 집계 자진출국 160만, 추방 40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250일 동안 미국을 떠난 불법체류자가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 루 평균 8000명꼴로 미국 4대 도시 중 하나인 휴스턴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지난 1 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체 자 160만 명이 자진 출국했고, 40만 명 이상이 강제 추방됐다"고 발표했다. DHS는 올해 말까지 60만 명가량이 추 가로 출국해 역대 기록을 경신할 것이 라고 전망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차관보는 "불 과 250일 만에 200만 명이 떠났다는 사 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효과가 입 증된 것"이라며 "전과자가 우선적으로 추방되고 있지만, 다른 불체자도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체포와 추방에 직면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HS는 또 "최근 4개월 동안 세관국 경보호국(CBP)은 단 한 명의 불체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불법으로 미국 온다면 감옥갈 것"이라며 불법 입국자에 대 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내에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불 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다면 감옥에 가거나, 원래 온 곳으로 돌아가거나, 아 니면 더 먼 곳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다.

국제사회도 그 여파를 확인하 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가 지난 8월 콜롬비아·파나 마·코스타리카와 공동 발표한 보고서 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시행 이후 중미 지역에서 미국을 향한 다고 분석했다.

불법 이주 시도가 97% 감소했다. 보고 서는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스스로 과 추방 위험"을 이유로 시도를 포기했

총기·마약 소지 한인 수배 괌 북쪽 북마리아나 제도

자치령 북마리아나 제도 공공안전국 (DPS)이 한인 남성 황희정(43)씨를 도 난 총기 소지, 마약 소지, 총기 신분증 요건 위반, 불법 탄약 소지 등 혐의로 수배했다.

조셉 카마초 고등법원 판사는 황씨 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보석금 을 10만달러로 책정했다.

황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도 기소

된 상태다. 지난 8월 25일 북마리아나 제도(괌 북쪽의 작은 섬)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그는 투어 가이드 지징 보르 하를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 다. 그는 지난 9일 법원에서 공식 기소 되었으며 2만5000달러의 현금 보석금 을 내고 석방됐다.

같은 날 가라판에서는 황씨 소유로 확인된 토요타 타코마 차량이 보르하 의 검은 차량과 자전거를 들이받고 도 주하는 뺑소니 사고도 발생했다. 경찰 은 이 사고가 납치 사건과 연관이 있다 고밝혔다. 송영채 기자

한상준씨 유족 찾아

콜로라도에서 한인 남성이 숨진 채 발 견됐으나 유족이 확인되지 않아 현지 당국이 공개 수소문에 나섰다.

메사카운티 검시관 사무소에 따르 면 지난달 15일 한상준(영문명 리처드 한·42·사진)씨가 콜로라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원은 확인됐지만 가족이 나 친지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검시관 사

무소는 23일 버지 니아주 경찰과 함 께 유족 찾기에 나 섰다. 한씨는 지난 1998년 미국 시민권 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메사카운티 검시관 사무소 (970-244-1898),버지니아주 경찰(540-정윤재 기자

UCLA 연구기금 5억불 복원 명령 발길을 멈췄고, 또 다른 절반은 "구금 동결 조치는 행정절차법 위반 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파킨슨

연방 판사, 대학 압박에 제동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UCLA 연구 보조금 5억 달러를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ABC7 보도에 따르면 리타 린 샌프 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지난 22일 가처 분 명령을 내리며, "행정부가 보조금 동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 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UCLA는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 가 반유대주의 및 적극적 우대 조치 (affirmative action)와 관련한 시민권 침해 의혹을 이유로 5억 8400만 달러 규모의 연구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병 치료, 암 회복, 신경세포 재생 등 국 민 건강과 직결된 수백 건의 국립보건 원(NIH) 연구 프로젝트 기금에 영향 을줄전망이다.

린 판사는 지난달에도 국립과학재 단(NSF) 보조금 8100만 달러 동결이 위법하다며 복원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연이은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압박 정책에 제동을 건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연구기금을 지렛대로 대학 개혁을 요구해 왔으며, 일부 대학은 정부와 합의해 보조금을 유지했다.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가 이에 응한 반면, 하버드대는 소송을 제 기해 이달 초 동결 조치가 불법적 보복 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식당 업주들 '먹튀' 골머리

음식값 내지 않고 도주 신고 해도 수사 하세월 악의적 '차지백' 고객도

최근 한인 식당 업주들이 무전취식(먹 튀)과 악의적인 카드 결제 취소(차지 백) 증가로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피해 신고를 해도 제 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업주들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먹튀의 경우 잘못 대응했다가는 더 큰 문제로도 번질 수

있어 냉가슴만 앓는다는 것이다.

LA한인타운 '올유캔잇 스시&바비 큐'(대표 크리스 한) 식당은 지난주 황 당한 일을 겪었다. 식사를 마친 타인종 고객 2명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 려고 해 직원이 뒤따라갔다. 그러자 그 들은 "카드를 테이블에 놔뒀으니 그걸 로계산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카드 결제를 하려는 사이 그 들은 달아났고 해당 카드는 분실 신고 가된 것인지 승인이 거부됐다. 이 업소 는 지난달 초엔 더 뻔뻔한 고객들로 인 해 피해를 봤다. 타인종 단체 손님 11명

6명은 "우리는 음식도 거의 안 먹었고, 식당서비스도 별로였다"는 황당한 이 유를 대며 계산을 거부했다. 이들과 언 쟁까지 벌였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로 업소를 떠났다. 이날 피해 금액만 200 달러에 달했다.크리스 한 대표는 올해 들어 비슷한 피해를 일곱 번 이상 당했 다고 토로했다.

이 와서는 5명만 결제를 한 것. 나머지

지난 1월에는 남성 고객 3명이 도망 가는 일이 있었고, 얼마 후에는 가족으 로 보이는 3명이 계산을 하지 않고 사 라졌다. 2월에도 2건이나 비슷한 일이 있었고, 6월에는 남성 4명이 식사를 한 후 차에 두고 온 현금을 가져오겠다고 하더니 달아났다. 강한길 기자

'2026 워싱턴 대학순위' 존스홉킨스 전국7위

대가 7위, 조지타운대가 24위에 올랐다. 23일 US뉴스&월드리포트 발표에 따 르면, 워싱턴 지역에서는 존스홉킨스 대, 조지타운대, 버지니아대, 메릴랜드 대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전국 최 고 대학 50위 안에 들었다.

공동 7위에 오른 존스홉킨스대는 상 위 10위 안에 머물렀지만 2025년보다

2026 전국 대학 순위'에서 손스홉킨스 한 단계 내려앉았고, 조지타운대는 24 위 그대로 유지했다.

> 버지니아 퍼셀빌에 있는 패트릭 헨 리 칼리지는 작년보다 29계단이 상승 해 107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메릴 랜드대는 작년보다 2계단 상승해 42위 를 차지했고, 버지니아대는 2계단 떨어 져 26위에 머물렀다. 버지니아 윌리엄 앤 메리대는 버지니아 공대와 함께 51위

59위를 기록했다. 아메리칸대는 88위를 차지했고 조지메이슨대는 100위권 밖 으로 밀려 117위에 자리를 매겼다. 전국 적으로는 프린스턴대가 최정상에 올랐 고 매사추세츠공대, 하버드대가 그 뒤 를이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종합대학과 칼리 지등을대상으로실시했다. 김성한 기자

'중앙리서치센터(Research ON)' 출범

한인사회 자료 조사·분석

미주중앙일보는 창간 51주년을 맞아 한 인 커뮤니티의 정체성과 권익을 정확히 반영하고 주류 사회에 신뢰성 있게 전 달하기 위해 '미주중앙일보 리서치센 터(Research ON)'를 공식 출범했다.

리서치센터는 커뮤니티 중심의 공 신력 있는 통계 생산을 목표로 한다. 한 인사회는 인구 규모, 경제력, 교육 수준 등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녔지만,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는 부족했다.

대부분의 통계가 인 구센서스나 외부 기관 에 의존해 한인의 특 성과 다양성이 충분히 🔲 🔭 💮 담기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정책·자원 배분·기업 마케팅 등에 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졌다.

센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설문조사, 질적 연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자료를 축적할 계획이다.



Email: admin@vaohc.com / General Inquiries: info@vaohc.com

트럼프의 아르헨티나 사랑… 통화스와프 꺼냈다

세계은행이 아르헨티나에 5조원이 넘는 자금을 속도전으로 투입하며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남미 우군 구하기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한국 정부의 통화스와프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미국 정부가 아르헨티나를 향해선 가능한 각종 지원책을 언급한지 하루만에 나온 결정이다. 반(反) 좌파 등을 내세우는 '이념적 동지'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가 있어 가능한 일이란 해석이 나온다.

2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 은행은 이날 향후 수개월 아르헨티나에 최대 4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 분야 개발 프로젝트, 관광활성화, 에너지 접근성 확대 등 아르헨티나의 개혁 의제를 돕는 걸 이유로 들었다. 공공 부문 자금 조달과 민간 부문 투자를 결합한 패키지 형태로지난 4월 세계은행이 발표했던 내용중일부를 앞당겨 진행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시 세계은행은 아르헨티나에 국제통화기금(IMF)이 200억 달러규모의 대출계약을 승인한 것에 대한후속 조치로 1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것을 결정했다.

세계은행의 이번 계획은 아르헨티 나에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밀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간에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만나 자신의 트루스소셜 게시글을 전달했다. 여기엔 "아르헨티나 국민을 위한 훌륭하고 강력한 지도 자" 등 밀레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평이 담겼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을 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에 참석한 밀레이 대통령을 만나 세계은행의 자금 투입을 언급한 뒤 "아르헨티나에 (IMF) 구제금융은 필요하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 "밀레이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IMF의 최대 채무국인 아르헨티나로선 구제금융보다 더 큰 선물이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전날 "아 르헨티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 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재무부는 아르헨티나를 지원하기 위해 임무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화으와프를 비롯해 직접적인 통화 매입, 재무부 환율안정기금(ESF)을 통한 달러표시 국채매입 등을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꼽았다.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하는 대신 안전장치로 통화스와프를요구한 것에 미국 정부가 명확한 답을내놓지 않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말레이 대통령이 미국의 전폭적 지 원을 받는 건 그의 친(親)트럼프 성향 때문이다. 말레이 대통령은 감세·긴축 재정 등 경제 분야뿐 아니라 좌파 세력 을 비판하는 등 사상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 대선 후 외국 정상으로선 트럼 프 대통령과 가장 먼저 만났고, 지난 2 월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던 일론 머 스크에게 전기톱을 전달하는 퍼포먼 스를 벌이기도 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좌파 포퓰리즘 등 아르헨티나의 병폐 를 일소하겠다는 구호로 지난 2023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 시물 중 하나를 인쇄한 종이를 건네며 신뢰를 표현했다. 해당 종이엔 "아르헨 티나 국민을 위한 훌륭하고 강력한 지 도자" "사기꾼 조 바이든과 흡사한 전 임 급진 좌파 대통령으로부터 엉망이 된 경제를 물려받았지만, 안정을 이끈 인물" 등 밀레이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 는 게시글 내용이 담겼다.

밀레이 대통령은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협의체 브릭스(BRICS)에 불참을 공식화하는 등 중국 견제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 있다. 공급망 재 편을 놓고 대(對)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광물 보유국인 아르헨티나의 친미·반중 노선은 마다 할 일이 아니다. 클라우디오 잠파 망가 트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는 블룸 버그 통신에 "미국에 밀레이는 단순한 경제 파트너 이상"이라며 "중남미에서 미 중심 블록을 형성하는 데 밀레이는 전략적·지정학적 동맹"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밀레이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의 긴축 재정·환율 방어 정책은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을 2024년 4월 289%에서 지난 8월 34%로 낮췄지만, 성장 둔화, 달러 비축액 감소 등 부작용도 초래했다. 그로인해 나빠진 민심으로인해 이달 초지 방선거에서 대패했고, 다음 달 총선과 2027년 대선에서도 고전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더해 밀레이 대통령 비서실장 이자 여동생인 카리나의 부패 스캔들, 금리 인상과 유동성 공급이 오락가락 하는 통화 정책은 현 정부에 대한 아르 헨티나인의 불신을 여전히 가중하고 있다. 알레한드로 베르너 미 조지타운 대 아메리카 연구소장은 파이낸셜타 임스(FT)에 "국제 공적 금융의 가용성 만으로 아르헨티나를 고칠 수는 없다" 며 "정치세력이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 을 뒷받침해야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 고내다봤다.

이근평 기자

"테슬라 공장서 로봇에 맞아 중상"

5100만 달러 소송전 터졌다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테슬라 공장에서 근무하던 기술자가 로봇에 의해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며 테슬라와 일본 로봇 제조사화낙(FANUC)을 상대로 약 51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인디펜 던트에 따르면, 테슬라 직원 피터 힌터 도블러는 모델3 생산 라인에서 로봇 분 해 작업을 돕던 중 로봇 팔이 갑자기 강 한 힘으로 분리되면서 균형추 약 3400 kg의 충격이 더해져 의식을 잃는 중상 을 입었다.

소송장에서 힌터도블러는 현재까지 치료비로 1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향 후 최소 6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 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체적·정서적 고통, 미래 수입 손실, 가사 서비스 손실 등을 포함해 총 5100 만 달러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다.

힌터도블러는 테슬라가 로봇을 지정 되지 않은 구역에 배치했으며, 반복적 으로 요청한 사고 당시 영상 제공도 거 부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에서 로봇으로 인한 부상 사건이 발생한 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도 엔지니어가로봇에 공격당해 심각하게 다친 바 있다. 화낙 또한 로봇 사고로 소송을 당한 전례가 있다.

2015년 미시간의 한 자동차 부품 공 장 정비 엔지니어는 화낙의 로봇에 걸 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이번 소송 사건은 미국 오클랜드 연방법원으로 이관돼 진행 중이며, 테슬라와 화낙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배재성 기지

국토안보부 홍보 영상에 '포켓몬스터' 등장

국토안보부(DHS)가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모습을 애니메이션 '포켓몬스 터' 속포켓몬을 잡는 모습에 비유한 홍 보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는 공식 X(옛 트위터)에 "다 잡아들여야 해 (Gotta Catch 'Em All)"란 글과 함께 1 분짜리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포 켓몬스터' 주인공 '지우'가 포켓몬을 잡기 위해 포켓볼을 던지는 모습이 DHS가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모습 과 교차로 편집됐다.

영상에는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주

제가가 배경음으로 깔려서, 마치 만화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을 준다.

그러나 영상에 나오는 장면은 꽤 폭력적이다. 해당 홍보 영상에서 DHS는 불법 이민자 체포를 위해 주택을 폭파시키고, 뒷수갑을 채우고, 무기를 과시한다.

체포된 사람들의 머그샷(범죄자 신상 사진)은 포켓몬 카드로 꾸며진 채영상은 끝이 난다. 카드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 혐의는 살인부터 성폭행, 아동학대까지 다양하다. 포켓몬스터의 저작권을 가진 닌텐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푸틴에 180도 달라진 트럼프 "우크라, 원래 영토 그 이상 가능"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까지 유엔 총회 에서 한 연설 중 가장 황당했다. 마치 선거 유세 같았다."

23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 기조연설 에서 시종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 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능하다고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 연 설에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내 놓은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 제 한 시간 15분을 훌쩍 넘긴 '54분 연설' 에서 상당 부분을 자신의 강력한 경 제·국방정책, 반(反)이민 정책으로 미 국이 진정한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다 며 업적을 자화자찬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취임 7개월 만에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 이는 노벨평화상을 받을 만한 업적"이라고 주장하며 유엔을 향 해서는 "그동안 도움을 주려는 시도조 차 하지 않았다. 공허한 말뿐이었다"고 비난했다. 각국 정상들과 세계 협력을 논의해야 할 유엔 총회에서 유엔의 존 재 이유 자체에 대해 극히 냉소적인 시 각을 드러내는 발언이었다.

54분 연설 대부분 청중 '침묵'

2019년 이후 6년 만(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화상 연설)에 유엔 총회 연 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하루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유엔 건물에 들어서던 중 타고 있던 에스컬레이터

가 고장났고, 연설 초반에는 프롬프터 (자막기)가 오작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롬프터가 작동 하지않으면더진심을담아말할수있 겠지만 프롬프터를 조작하는 사람은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며 "유엔이 내 게 제공한 것은 고장난 프롬프터와 에 스컬레이터뿐"이라고 비꼬았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연설 내내 특별한 반응 을 보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청 중석에서 거의 유일하게 웃음소리가 들렸던 장면이다.

세계 각국의 최대 현안인 기후 변화 와 이민 정책을 두고서는 수위 높은 언 사를 써 가며 초강경론을 폈다. 트럼 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와 친재생에너 지 정책을 "세계에서 역대 최고의 사 기극", "녹색 사기"라고 각각 규정하며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당신들 나 라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유럽 정상들을 향 해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당신들 유 산을 파괴하고 있다. 당신들 나라는 지 옥으로 가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최근 영국 · 캐나다 · 호주 등 서방 국 가들이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 정한 것에 대해서는 "하마스(팔레스타 인 무장 정파)의 만행에 대한 너무 큰 보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핵 화 논의를 제외한 북 · 미 대화에는 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 [연합뉴스]

할 수 있다고 밝힌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취임후) 영 국·EU·일본·한국·베트남 등 수많은 국가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잇달아 성사시켰다"며 무역 협상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두고 영국 BBC 방송은 "그가 세상을 바라 보는 방식과 사상이 적나라하게 드러 나는 순간이었다"며 "그의 지지자들 에게는 '트럼피즘의 원형'으로, 비판자 들에게는 '제정신 아닌 트럼피즘'으로

보일 것"이라고 짚었다.

우크라에 "본래 영토, 그 이상 이룰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를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 나 대통령을 만나면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달라진 인 식을 드러냈다. 그는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지 원을 받아 싸우면 원래 형태대로 우크 라이나 전역을 되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며 "우크라이나가 전쟁

개시 전 원래 국경을 되찾는 것은 충분 히 가능한 선택지"라고 했다. 러시아를 향해서는 "진정한 군사강국이라면 1주 일도 안 걸렸을 전쟁을 3년 반 동안 목 적 없이 싸워왔다"며 "그들(러시아)을 '종이호랑이'처럼 보이게 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나토 영공 침범 러 항공기 격추해야"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이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치켜세웠 다. 그간 우크라이나 지원론을 펴온 공 화당 내 전통 보수 진영 정치인들 사이 에서도 "푸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 등 호응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의 회담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가 자 국 영공에 진입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 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근 러시아 드론 · 전투기가 폴란드 와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의 영공 을 침범하는 사례가 늘면서 회원국 간 집단방위 조항을 명시한 나토 5조 발 동 가능성을 러시아에 경고하는 등 긴 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 이었다.

김형구 특파원

트럼프 암살미수범, 배심원 유죄 평결에 법정서 자해 시도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 골프장에서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혐 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배심원단 의 유죄 평결이 나온 직후 자해를 시도

2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라이언 라 우스(59·사진)는 이날 플로리다주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 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 12명은 약 2시간의 심의 끝에 라우스 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했다. 평결이 발표된 후 배심원들이 법 정을 나가던 중에 라우스는 펜을 움켜 쥐고 자신의 목을 찌르려 했고, 보안관 들이 재빨리 그를 저지한 뒤 법정 밖으 로끌고 나갔다.

라우스가 사용한 펜은 구금 중인 사 람들이 무기로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 어진 것이어서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 았다고 한 익명 소식통은 AP에 전했

다. 보안관들이 라우스를 끌고 나가자 법정에 있던 그의 딸 사라는 비명을 지 르며 "아빠, 사랑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아빠를 꺼내드릴게요. 아 빠는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라 고외치기도 했다.

라우스는 지난해 9월 15일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 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트럼 프 당시 후보를 암살하려 한 혐의로 기

소됐다. 이 과정에 서 연방 요원을 공 격하고 일련번호가 지워진 총기를 소지 한혐의 등도 있다.

라우스는 최종 변론에서 배심원들

에게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았다면 범 죄가 발생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무죄 를 호소했다.

당시 그는 트럼프 후보를 향해 실제 로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지만, 조준 경이 장착된 소총의 총구를 골프장 안 쪽으로 들이대고 있었고, 경호 요원이 이를 발견해 사격하자 총을 떨어트리 고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그는 당일 누구도 해칠 생각이 없었 다며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비밀경호 국 요위을 진작 쐈을 수 있다고 주장했 김은빈 기자

자민당 총재 선거 후에…日 이시바 '전후 80년 견해' 내놓을 듯

이시바 시게두(右破茂) 일본 종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뒤 '전후 80년 견해' 를 내놓을 전망이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줄곧 밝혀온 전 후 80년 메시지 발표를 다음 달 4일 치 러지는 총재 선거 후에 발표하는 방향 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사실상 후임 총 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영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퇴임 전 자신의

소신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이시바 종 리는 전후 80년 견해에서 역대 일본 내 각 인식을 계승하면서도 전쟁을 막지 못한 요인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미 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연설 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시바 총리는 올해 전후 80년을 맞

아 종리 담화 발표를 검토했다. 일본 역 대 정부가 10년에 한 번씩 각의(국무회 의) 결정을 거쳐 내놓았던 담화를 올해 내놓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옛 아 베파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 보수파의 반발에 부딪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015년 전후 70년 담화를 내 놓으면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사죄 하는 숙명을 지워줘선 안 된다'는 입장

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시바 종리는 잠 의원(상원)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각의 결정 없이 총리 개인 자격으로 내 놓는 견해 발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전후 80년 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 는 이날 약 30분에 걸친 연설에서 "역 사와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서는 밝

은 미래를 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쟁의 참화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섬을 송선(패선)기념일인 8월 15일에 마음에 새겼다는 이야기도 꺼냈다. 그 는 "두 번째 세계 대전을 경험한 세대 다수가 각국 사회 중심에서도 사라지 고 있다"며 "국제 사회는 재차 분단과 대립을 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 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가자지구를 둘러싼 분쟁을 의미하는 발언이다.

김현예 특파원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

24/7 전화 진료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면역력 강화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H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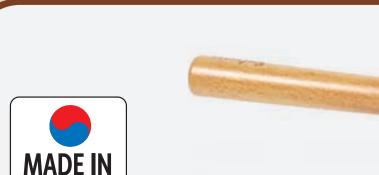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금, 9am~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SEP. 25TH - OCT. 2ND, 2025



LIMIT 2

KOREA

SURLASANG GA-ON IH FRY PAN 수라상 가온 IH 후라이팬 (PINK/GREEN) 28 CM/EA



LIMIT 2

SUHYUP DRIED ANCHOVY

보령수협 지리멸치 20 OZ/PKG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MART]

FAIRFAX ANNANDALE CENTREVILLE FALLS CHURCH MANASSAS BURKE HERNDON

VIRGINIA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CATONSVILLE GAITHERSBURG WHEATON **FREDERICK ELLI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국민참여재판 원하나 묻자 "김건희, 큰소리로 "아닙니다"

헌정사 첫 법정 선 전 대통령 부인

수용번호 4398 ... 직업 묻자 "무직" 첫재판 40분, 주가조작 등 혐의 부정 내달 15일부터 수·금주 2회 재판

24일 오후 2시12분, 서울중앙지법 311 호 형사중법정 내에 일제히 카메라 셔 터 소리가 울렸다. 남색 정장을 입고 재 킷 왼쪽에 수용번호 '4398' 배지를 단 김건희 여사가 흰 마스크와 검은색 뿔 테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 석에 앉았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피고 인석에 앉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건희특검 "증인 총 27명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 성)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 법 위반 등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열었 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이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김 여사가 재판 시 작 전 법정에 들어와 앉는 모습이 공개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무죄추정 원칙을 해하지 않은 최 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촬영을 허가했 다"고 설명했다. 촬영은 공판이 진행되 기전약 1분간만 허용됐다.

법정에 들어서면서 김 여사는 양손 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피고 인석에 도착해서는 방청석을 향해 한 번 꾸벅 고개를 숙인 뒤 자리에 앉았 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변호인단 과 재판 자료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 다.

언론 카메라가 퇴장한 뒤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이름·생년월 일 등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이 시 작됐다. 김 여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원 하나"라는 재판장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다. 생 년월일을 묻자 "72년 9월 2일입니다"라



김건희 여시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김 여 사의 재킷에 수용번호 '4398'이 적힌 흰색 배지가 부착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 말했다. 직업을 묻는 말에는 "네, 무 직입니다"라고, '등록기준지가 강상면 이 맞나'라는 질문에는 "네 맞습니다" 라고 했다.

이날 첫 재판은 40분간 진행됐다. 특 검팀에서는 김형근 특검보, 한문혁 부 장검사를 포함해 총 8명이 출석했다. 김 특검보가 관련 공소사실을 설명했 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 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 의(자본시장법 위반)가 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 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탁을 도 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현안을 청 탁받고 그라프 목걸이 등 8293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 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김 여사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 했다. 김 여사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 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원서 다투겠 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첫 재판도 특검 팀이 기소한 3개 혐의를 반박하는 것 으로 시작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주가

김건희 여사 주요 혐의와 남은 사건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 자본시장법 위반 김건희 특검의 김 여사 1차 기소 사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 •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청탁성 귀금속 수수 의혹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특검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의혹 •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통일교-국민의힘 유착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집사 게이트 의혹

조작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와 윤석 열 정부에서 모두 철저한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주가조 작 공범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진술이 다수 발견됐는데 일부만 발췌해 침소 봉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 다. 이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지 시하거나 별도의 계약관계가 없었고,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선 금품을 받은 사실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 재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에서 "증거기록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장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10월엔 특검 측이 먼저 증인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하고, 11월 에 같은 증인을 상대로 김 여사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기로 했다. 특검법 규정 상 6개월 이내로 1심을 마쳐야 한다.

특검 측이 필요하다고 밝힌 증인은 총 27명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부 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재판 을 열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혐의를 우선 심리한 뒤 순차적으로 명태균 사 건, 건진법사 사건 관련 증인신문을 진 행한다.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과 검토 에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치는 게 가능하겠느냐" 고묻기도했다.

윤 전 대통령, 내일 보석 심문 출석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추가 수사 는 이어지고 있다. 김상민 전 검사로부 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 터 반클리프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를 받았다는 의혹을 비롯해 양평고속도 로 종점 변경 특혜,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들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어질 전

이날 열린 김 여사의 첫 재판은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사건의 '법원의 시간'이 본격화됐음을 알린 셈 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 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내란특검팀(특 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 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윤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 석에 대한 심문도 함께 열린다. 첫 공판 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해 야 한다. 기소가 한 건도 없는 순직해병 특검팀도 추석 연휴 이후 관련 인사들 에 대한 기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진호·최서인 기자

지방선거 빨간 불 켜진 장동혁 대전행…채 상병 묘소배

힘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 수성에 빨 간 불이 들어온 광역자치단체를 잇따 라 찾고 있다. 지난 14~15일 부산을 찾 았던 장 대표는 24일 대전을 1박 2일 일 정으로 찾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대전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으로부터 산단 조성현

이번에는 대선이었다. 상농혁 국민의 _ 황 및 대선교노소 이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6~7일 대전시 유권자 8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시장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 소속 허태정 전 대전시장 16.3%, 국민의힘 소속 이 장우 시장 16.1%로 오차범위(±3.5% 포인트) 내 박빙이었다. 한국사회여론

연구소(KSOI) 여론조사(지난 7~8일, 민주당 소속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20.3%)이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 시장(15.9%)을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 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직 프리미 엄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건 위험 신호" 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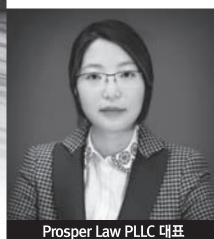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나

- 노·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현장에서 이 - 대전현중원을 찾아 고(故) 채수근 상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2명)에선 장우 대전시장과 만났다. 이 시장의 산 단조성 및 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을 듣 던 장 대표는 "이 시장께서 강력한 리 더십으로 대전을 바꾸고 있다"며 "나 노·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대전 이 가장 적합하다. 당에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충청의 아 들"이라고 장 대표를 치켜세운 이 시장

은 "대전에 많은 관심을 쏟아달라"고 화답했다.

장 대표는 이 시장을 만나기 전 국립 병의 묘역에 참배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이후 국민의힘 대표가 참배 한 것은 처음이다. 참배 후 장 대표는 "귀중한 희생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 는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장대표가예비격전지를 잇따라찾는 건 장 대표 개인의 정치적 명운이 지방 선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김규태기자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결혼 이민 ㆍ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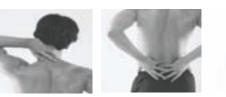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Viginia Board of Medicine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 / 척추신경 / 손 / 발 전문 통증병원 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교통사고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삐는 발목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청소년 성장클리닉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센터빌/챈틀리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코너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위튼 한아름(H-mart)에서 10분 거리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아름(H-mart)과 챈틸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HDLE 주차장 건너편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3.256.0606 • 800.551.9373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엘리콧시티 뜨레쥬르 제과점 옆 410.480.0100 * 800.564.4429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인터넷보다 저렴한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배, 도배 직판점 MOREAN AIR

탐여행사배을기을





1박 2일 | \$650(모두포함)

스모키 마운틴

3박 4일 | \$1090(모두포함)

출발: 10월 21일(화)

출발: 10월 28일(화)

채용 미동부 투어가이드 공고 사무직원(센터빌지점)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DELTA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info@toptravelusa.com 문의: 703 543 2322

OCIES CHOM 스로모십니다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백/플래츠버그/뉴욕 형버스 확정 : 나이아기라 폭포 옆 Hotel 숙박 5박6일 \$1350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론타워 스페셜 특식(옵션) 2박3일 \$650 10/6

뉴욕&천섬&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3박4일 \$899

1박 2일 \$399

囚출발기능: 10/9(목)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mark>루레이 티켓만 판매 \$2</mark>5

★ 당일관광 / 소수인원 출발기능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주요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9일 \$1540+항공

서부 4CH 캐년 5박6일 \$990+ゥse 🔒 🛎 5[H 카[년+시]도[나 6박7일 \$1300+항공 (일) #1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5박6일 \$990+

카나나다 목키 4박5일 \$1190+항공 알래스카 6박7일 \$1640+항공 (일) 발 **옐로스톤** 3박4일 \$950+항공 (11) #2

마운트 러시모어 3박4일 \$1090+88 코스타리카연합 5박6일 \$1300·형공 📔

지난해 조기 마감된 인기 일정! 늦기 전에 예약하세요



대형버스확정: 10/22(수), 25(토), 27(월)

+아미쉬마켓 당일 \$199 9/30, 10/16, 10/29, 11/13, 12/4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10박11일(제주포함) | \$2990+항공 8박 9일(내륙관광) | **\$2490**+항공

32년 전통 탑여행사가 아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고국 방문의 명가 탑여행사가 모십니다.



인천/부여/군산/전주/담양/순천/여수/광양 하동/진주/거제/부산/울산/경주/정동진 강릉/속초/김포/제주

10/14~10/24 回路일

10/21~10/31

<mark>하 10/28~11/07 패함</mark>

연합

* 2인 이상

출발보장

3박4일 \$1149+항공

3박4일 | \$1149+항공

5박6일 | \$1899+항공 11/08~11/13

일본크루즈 11박12일 11/3~11/14 인사이드 \$2990+항공부터~ /오션뷰-발코니요금문의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서울관광포함(경복궁,인사동)

•모든 옵션 포함

패키지여행

최초 계약 체결

동대문 노보텔과

\$240차이

여수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 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호텔 숙박, 바닷가 호텔 오션뷰 확정 <mark>콘래드서울/</mark>전주한옥마을라한호텔/여수소노캄/거제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트리읔 꼭 베교해 보세요!





라한셀렉트 경주



일반뷰와 \$180차이



그랜드 조선 부산

일반뷰와 \$180차이

★ 특급호텔의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호텔에 일찍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매주 2인이상 출발보장] | 서울 사무소 직영 운영 |

한글 Tour \$1499+항공 영어 Tour \$1699+항공

LH록 6박7일

서남권 3박4일 한글 Tour \$829+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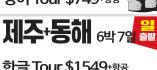
영어 Tour \$929+항공

한글 Tour \$989+항공

영어 Tour \$1119+항공

제주도 2박3일 **불**

한글 Tour \$549+항공 영어 Tour \$749+항공



한글 Tour \$1549+항공 영어 Tour \$1879+항공

전국일주 약10일

한글 Tour \$2199+항공 영어 Tour \$2599+항공

그리스&튀르키예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 \$1340/여 \$1660

10박 11일

남/여 \$520

하노이/하롱베이(量 3박 5일 | \$690+항공

다낭

대만 3박 4일 | \$690+항공 싱가폴

3박 5일 | \$450+항공

3박 5일 | \$850+항공

👼 나트랑/달랏 🎄

3박 5일 | \$450+항공

TMCI 1= 2322

서울대병원(기본검진) 남/여 \$940 현대이산병원 서울삼성병원(Primary) 세브란스(미국국적) 경희대병원 가천대길병원 남 \$720/여 \$770

09/30~10/13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590+항공 정통 동유럽 09/30~10/06 6박 7일 \$2790+항공 10/05~10/13 크로아티아 발칸 8박 9일 \$3590+항공 10/07~10/17 스페인&포르투갈 '마강양박 10박 11일 \$33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3590+항공 10박 11일 10/14~10/24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때생생박 10박 11일 \$2990+항공 튀르키예 일주 10/20~10/28 8박 9일 \$1990+항공 10/21~10/3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대장양박 10박 11일 \$2990+항공 10/28~11/07 고품격 고국일주 6차 '마강양박 10박 11일 \$2990+항공 11/21~12/02 이집트 두바이 11박 12일 \$3899+항공 **11/23~11/27** 4박 5일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90+항공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490+항공 12/23~12/30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7박 8일 \$2490+항공

2026

01/21~02/02 신비의 인도 12박 13일 \$3790+항공

= २०२६७ **० ग**्रम वारा अञ्चनसाद **३** 01/27~02/11 페루&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15박 16일 \$9990+항공 02/01~02/11 호주&뉴질랜드 10박 11일

02/03~02/07 4박 5일 \$1990(항공포함) 02/07~02/15 바하마 크루즈(뉴저지 출발) 8박 9일 02/19~03/06 아프리카&두바이 15박 16일 \$12500+항공 02/25~03/02 페루 일주 6박 7일 \$2990+항공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02/26~03/07 9박 10일 \$3590+항공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03/16~03/28 12박 13일 \$5490+항공 03/16~03/23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 8일 \$3190+항공

03/22~03/28 6박 7일 페루 일주 \$2990+항공 04/14~04/24 10박 11일 \$2990+항공 **정통 서유럽** \$3590+항공 04/22~05/02 10박 11일 04/29~05/12 \$4590+항공 13박 14일 **04/29~05/05** 6박 7일 정통 동유럽 \$2790+항공 05/04~05/12 발칸 크로아티아

05/05~05/15 \$3190+항공 코스타리카 \$1599(인사이드),\$1899(가려진 발코니) 3박 4일 8박 9일 고품격 고국일주 1차 5박 6일 3박 4일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8박 9일 13박 14일 \$3590+항공

10박 11일 \$2990+항공 05/11~05/21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 11일 05/12~05/22 10박 11일 05/19~05/29 10박 11일 05/22~05/25 06/09~06/17 06/10~06/20 10박 11일 06/16~06/26 10박 11일 06/17~06/28 11박 12일 06/20~07/03 13박 14일 06/23~07/03 10박 11일 06/30~07/05 07/01~07/04 07/07~07/17 10박 11일 07/14~07/22

\$29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3390+항공 서유럽 3개국 \$3590+항공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1290+항공 스위스 알프스 일주 \$4590+항공 정통 서유럽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한) \$2990+항공 영국일주 \$5890+항공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5990+항공 북유럽 4개국 \$4990+항공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1690+항공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1290+항공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3590+항공 아이슬란드 일주 \$6890+항공 08/01~08/14 북유럽 4개국+발틱 3국 \$5990+항공

5박 6일 08/13~08/19 6박 7일 09/04~09/07 3박 4일 09/08~09/18 10박 11일 09/15~09/25 10박 11일 09/23~10/03 10박 11일 09/29~10/12 13박 14일 09/29~10/05 6박 7일 **10/01~10/14** 13박 14일 **10/04~10/12** 8박 9일 10/06~10/16 10박 11일 10/08~10/18 10박 11일 10/13~10/23 10박 11일 10/20~10/30 10박 11일 10/15~10/28 13박 14일

08/04~08/14 북유럽 4개국 \$4990+항공 08/07~08/12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1690+항공 알래스카 일주 \$2990(항공포함)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1290+항공 정통 서유럽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4차 \$29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2990+항공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4590+항공 정통 동유럽 \$2790+항공 독일 일주 \$5690+항공 발칸 크로아티아 \$35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3390+항공 정통 서유럽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5차 \$29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6차 \$2990+항공 프랑스 일주 \$56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조희대 겨냥 공수처법에 법무부 "권한남용" 국회 "과도"

'수사범위 확대' 법사위 회의록 보니 법사위 전문위원 "수사범위 모호" 법원행정처 차장 "취지에 안맞아" 법무차관 "민주적 통제장치 미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 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공수처법 개정안 에 법원행정처·법무부는 물론 국회 전 문위원까지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확 인됐다. 민주당 김용민·장경태·이성윤 의원은 현재 뇌물·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로 한정된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 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을 차례로 냈다.

장경태·이성윤 안은 경찰과 검사 등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들의 대상 범죄 만을 확대하는 내용이었지만, 민주당 이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 원장에 대한 긴급현안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지난 22일 김용민 의원은 대법 원장을 포함한 법관의 '모든 범죄'를 수 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추가로 발 의했다.

원래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뒤 소위로 회 부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예외 규정을 활용해 김용민 안도 하루 만에 상정했다.

24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정환철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은 이들 개정안에 대해 "주체 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성이 있는 범죄로서 고위공직자 범죄 의 수사 또는 공소 과정에서 인지한 모 든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범위가 모호해 수사권이 과도하게 확 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도 반대 의견을 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고위 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

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비한 상태 에서 그수사 및 기소 범위를 확대하고 이첩권 등을 강화해 타 수사기관에 대 한 우위를 인정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의 원리에 반(反)하는 측면이 있다"며 "자칫 공수처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귀 결될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공수 처법 개정이 특정인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란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성윤 의원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에게 "지금 지귀연 (부장)판사 수사 중에 있죠. 수 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고 물었 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 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이다. 이 차장이 "최선을 다해 진행 중"이라고 하자 이 의원은 "그렇게 답할 일이 아니다"고 다그치며 "혹시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 죄가 아니라서 수사가 안 되는 것은 아 니냐"고 말했다. 이에 이 차장은 "그렇 지는 않다. 뇌물죄 관련은 저희 관할 범 위"라고 답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언론 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 망을 운운하는 건 역사의 코미디"라 며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 들은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입 법·행정권이 사법부 독립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게 헌법 원칙"이라며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와 행정부에서 책임 추궁이 따르는 상황이 조성되면 어느 법관이 독자적으로 헌법과 양심 에 따라 재판한다는 안도감을 갖겠나" 고반대의견을냈다. 하준호·강보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찾아간 천대엽 "윤 재판중계 적극적 지원"

천 "내란재판 국민 우려 해소 차원" 우 "국민불신, 사법부가 결자해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계에 대한 사법행정적 지원을 적극 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우 의장이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예방 한 천 처장에게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 결자해지해야 한다" 고주문한데 대해서다.

우의장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의 윤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5월 대법 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를 언급하며 "일련의 흐름에 국민이 불 안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천 처장은 내란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 안으로 재판 중계를 제안했다고 한다. 내란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절 차를 투명하게 다 공개하겠다는 취지

재판 중계 제안은 특검법에 따른 의 무적 재판 중계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 인 재판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지난 23일 의결된 내란특검법 개정안 은 재판 중계를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 돼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되는데, 그 사이의 재판 또는 특검팀이 기소하지 않은 기존 사건도 재판 중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 중계 의무가 없는 사건의 재판 중계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

므로 법원행정처가 강제할 수는 없다. 한 참석자는 "마침 오늘 내란특검팀이 기소(직권남용 혐의 등)한 사건 1차 공 판과 보석심문에 대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가 제출됐다"며 "허가 결정이 이뤄질 경우 사법적 지원을 적극적으 로하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

우 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지금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 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결자해지 해야한다"고말했다.

우의장은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 고, 그래야 사법부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이 대통령 "한반도 안보는 국제사회 전체 평화와 연계"

대통령 "국제갈등 속 유엔역할 중요" 유엔총장 "한국, 신뢰받는 파트너" 체코·우즈베크와 잇단 정상회담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안토 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 전

제의 평화·안보와노 연계돼 있다"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 해달라"고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3박5일 일정 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 령은 전날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의 해법으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은 한국 정 부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 라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현명한 접근이며, 적극적으로 지지·지원하겠 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 등이 심화되면서 분쟁으로까지 확대

되는 상황에서 유엔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역량 있는 우리 인 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이 관심을 가져 달 라"고 당부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 정 부가 유엔에서 지혜롭고 균형 잡힌 목 소리를 내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 다"며 "인도지원, 지속가능한 발전목

표 달성, 인권, 가자 및 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 대응에서 한국이 신뢰받는 파트너"라고화답했다.

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 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 는 뜻깊은 해에) 양국 간 협력이 원전 을 넘어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 다"고말했다. 오현석 기자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전면광고 △↑↑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BBQ구이전통한식

런치 스페셜 뷔페

(월 ~ 일 11AM ~ 3PM)

뷔페 메뉴

스시, 쌈밥, 강된장, 비빔밥, 나물, 육개장, 생선조림, 불고기, 제육, 양념치킨, 탕수육, 돈까스, 생선구이, 소고기 무국, 우거지 된장국, 호박죽, 떡볶기, 김말이, 오뎅, 만두, 잡채 샐러드, 고구마 튀김, 김치, 깍두기, 밑반찬....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혜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 월, 화, 목, 일 | 수요일

> >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스시 맨, 스시 보조 (숙소 제공 가능)

6·27 부동산대책, 그후 석달 현장 점검

마성광이어은동들썩

집값 '풍선' 커져간다

공급 3년 걸리고 입지도 외곽 위주 정부 '더센대출규제' 꺼낼가능성 규제 전에 "집 사자" 심리 번져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대장 아파트 '마 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면적 84m²는 이달 초 24억7500만원 신고가에 거래 됐다. 지난달 23억원 거래에서 열흘 새 1억7500만원 올랐다. 염리동의 5년 차 신축 아파트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전용면적 84m²도 지난달 말 27억5000 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인근 중개업 소 사장은 "이달 들어 고층 매물이 30 억원에 거래됐다"며 "매물은 적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 팔렸다 하면 신고가 계약"이라고 말했다.

성동구도 마찬가지다. 성동구 옥수 동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전용 59 m²는 지난 13일 22억9000만원 최고가 에 거래됐다. 보름 새 1억3000만원 올 랐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성 동·마포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며 "지방 혀금 부자들은 갭투자(전세 끼 고 매매)가 막힐까 봐 전세 낀 매물이 나오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을 6억원으로 묶는 등 6·27, 9·7 두 차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 했지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 승세가 여전하다. 9·7 공급 대책이 실 수요자를 안심시키지 못하면서 추가 규제가 나오기 전에 '똘똘한 한 채'를 사야 한다는 매수세가 확산하면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 설팅부 수석은 "통상 거래량이 늘며 집값이 오르는데, 지금은 대출 규제 탓 에 거래량은 주는데 신고가 거래가 늘 고 있다"며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있 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십수인이 매도를 보류해 시장에선 매물이 줄고, 이에 반해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은 많 기 때문에 강남 다음으로 집값 상승 여력이 높은 지역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현금 부자가 아닌이상강남3구는6억원대출로살 수 있는 집값이 아니다. 그다음 상급지

135만가구 9·7 공급 대책 내놨지만 인 마포·성동·광진·동작 등 한강벨트 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

>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6월 1만900건대에서 7월 3944건, 8월 4097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지만, 주요 지역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매달 늘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성동구는 전체 거 래 중 신고가 거래 비중이 지난달 32% 에서 이달 46%까지 늘었다. 마포구도 31%→38%, 광진구는 44%→56%로 확 대됐다.

> 현장에선 9·7 공급 대책이 되레 단기 급등의 불쏘시개가 됐다는 목소리가 많다. 마포구의 공인중개사는 "당장 와닿는 공급 내용은 없고 토허제 등 규 제 가능성을 시사해 집값이 뛰기 시작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 일 기자회견에서 "계속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도 시장이 규제 시 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한국토 지주택공사(LH) 주도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급까지 3년 이상 걸 린다. 입지도 수도권 외곽 위주에 그쳤 다. 반면에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강화(50%→40%), 국토부 장관의 토허제 지정 권한 확대 등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 토허제 지정 후보지로 거론되는 한 강벨트 지역 매수세와 관련해 중개인 들은 최대 6억원 대출에도 불구하고 ▶부모 도움을 받은 30대 부부가 20평 대를 매수하거나 ▶고소득 맞벌이가 1 주택을 팔고 30평대로 갈아타는 경우 ▶지방 현금 부자는 전세 낀 매물 매수 가 많다고 전했다.

> 현금 여력이 많지 않은 실수요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한 30대 직장 인은 "6·27대책 이후 살고 싶은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사고 싶 던 마포구 아파트값은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 됐다"고 허탈해했다. 한강벨트 아파트값이 단기간 급등하 면서 상승세는 인근 동대문 은평구 등 으로도 퍼지고 있다. 동대문구에서 만 난 공인중개사는 "성동구 매물을 찾다 가 가격이 맞지 않자 동대문 신축 아파 트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정은혜 기자

"전세매물, 1000세대 중 1개" 정부 규제가 부채질

서울 전세 매물 올 초보다 25% 줄어 중개사 "전세매물 나오자마자 거래" 전셋값도 2분기보다 5% 올라 7억대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매물은 줄 고가격은 오르고 있다. 전세를 찾는 수 요는 여전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와 '공급 절벽' 여파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922 건으로 올 초(3만1814건)보다 24.8% 감소했다. 서울 곳곳에선 전세 품귀 현 상이 벌어진다. 23일 기준으로 은평구 '백련산SK뷰'(1305세대)는 전세 매물 이 5건, 동대문구 이문동 쌍용아파트 (1318세대)는 1건이다. 송파구 '송파더 센트레'(1138세대)와 중랑구 '신내우디 안1단지'(1402세대)는 0건이다. 보통 집 주인들이 분양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 세를 내놓는 경우가 많은 신축 아파트 도 매물이 많지 않다. 지난 6월 말 입주 를 시작한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 아'(1806세대)의 전세 매물은 10건뿐이 다. 휘경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매물이 나오면 무서운 속도로 거래가 된다"고 전했다.

KB부동산의 서울 전세수급지수 는 이달 셋째 주 기준 154.2로 6주 연 속 150 이상을 기록했다. 100보다 크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시세 정보가 게시돼 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함영 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아 파트 매수를 희망하던 실수요자들이 6·27대책 이후 두 달간 시장을 관망하 며 임대차 시장에 머무른 데다 입주 물 량 자체도 줄어 전세 매물이 부족해졌 다"고 분석했다.

매물이 부족하니 전셋값은 오름세 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7~8 월 거래된 서울 전용면적 84m²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7억1206만원으로 2분기(6억8036만원)보다 4.7% 올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 세가격은 34주 연속 상승했다. 7~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도 2만1738건 으로 직전 두 달(5~6월, 2만5228건)보 다.

다 감소했다. 통상 가을 이사철을 앞둔 7~8월은 5~6월보다 거래량이 많은데, 올해는 다른 움직임이다.

정부의 금융 규제가 '전세 실종'이라 는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온 다. 6·27대책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방식)가 차단됐고, 9·7대책에 선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 전 세 공급기능이 약화했다.

전세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이 줄 고 전셋값도 오르니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거주 기간 을 늘리고 있다. 올해 7~8월 전세 갱신 거래는 아직 신고기간이 남았는데도 9898건으로 지난해(7243건)보다 늘었

정은혜 기자

김성환 "2035년 내연차 중단도 검토"

〈환경장관〉

환경부 "온실가스 규제 맞추려면 EU처럼 신차 판매 제한할 수도"

정부가 유럽연합(EU)처럼 2035년부 터 국내에서 내연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친환경차 보조 금 위주의 정책으로는 2035년 국가 온 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달성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수송 부문 토 론회'에서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가 450만 대였는데 얼마 전 까지 85만 대에 그친 게 현실"이라며 "내연차를 유지하면서 수요에 맞게 전 기차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 마저도 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토론회에서도 김 장 관은 "2035년이나 2040년에 내연차를 중단하는 결정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기

존 인센티브만으로는 2035년 NDC 목 표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정부조직개편으로 곧 출범하는 기후 소비자부담·업계반발 설득이 숙제 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국토교통부 등관계부처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 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 장관은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 부의 에너지 분야를 합친 기후부의 수 장을 맡게 될 것이 유력하다.

환경부가 이렇게 강력한 내연차 퇴 출 정책을 꺼낸 건 수송 부문의 온실 가스 감축 속도가 가장 더디기 때문이 다. 지난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2018년 대비 1.3% 줄어드는 데 그쳤다. 매년 1조원 넘는 예산이 전 기차 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있는 걸고 려하면 최악의 성적표다.

NDC는 각국이 향후 10년간 온 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5년마다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가별 감축 목표다. 정부가 제시한 2035 NCD 후보는 2018년 배출량 대비 각각 48%·53%·61%·65%를 줄이는 4가지

안이다. 이 중 61%와 65% 감축안을 달 성하려면 무공해차를 35% 이상 확대 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EU처럼 2035년 내연 차 판매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이다. 최민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 보센터장은 "61% 이상의 경우 신차 판 매 대부분이 무공해차로 이뤄져야 한 다"며 "EU 등에서 하는 신차 판매에 대한 규제 같은 것도 검토해 볼 수 있 을 것"이라고 했다. 무공해차 전용 자 동차세·법인세 혜택 등 인센티브도 추 가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EU와 캘리포니아 등은 내연 차 판매 금지 시한을 2035년으로 정했 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 반발과 소비자 부담 등을 이유로 시기를 늦추거나 폐 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최근에도 폭스 바겐 등 주요 업체들이 2035년 내연차 판매 금지는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EU 집행부도 예외 규정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천권필·채혜선 기자



受養量外的等別

5. 첸틀리 하이 싱글

6. 던로링메트로앞 콘도

7. 맥클린 콘도



410-370-4229 · 301-275-1494

EMET.Inc NMLS #201332

RENT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鱼比 **GSHwang Realty**



1. 우드브리지 싱글

방3, 화2.5, 차고1, 좋은학군 /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95/234 Coming Soon \$645,000 2014년, 방3, 화2.5, 차고2,

Coming Soon \$639,000

Dulles Airport, RT28 Coming Soon \$670,000 2012년, 방, 화3.5, 최고 학군, RT267/50/28/607, 덜러스 공항

4. 웃슨 하이, 프로스트미들 2025 새 싱글 방5, 화5.5, 5,000sqft, 차고2, 모던 디자인, 123/236/GMU



\$589,000 방 3, 화2.5, 차고1, Hmart인근, 29/Braddock/28/66

Metro, Tysons Galleria 옆

방4, 화3.5, 4,000sqft, 차고2,

전부 업그레이드,

1.835saft.

전부 리모델링, 마루

박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286/50/lees comer rd

방1, 화1, 1/2 층 오픈 loft,



40

\$1,050,000 9. 애쉬번타운

\$409,000 11.애난데일 싱글

전체마루, 2 차고, 덱, BRIAR WOODS high, 267/607 **SOLD** \$1,060,000

\$3,3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SOLD \$69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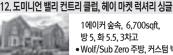
Braddock/Backlick Rd 만나는 Giant 인근,

최고 로케이션, 방3, 화3, 카포치1, 새지붕, 드라이브웨이 4대, 뒷숲, 2,312sqft, 0,46acre, Sold As Is, 리모델링, 투자가치 높음, 동네시세 보다 십만불이상 싼집,

395/236/495/95/66

\$1,699,000

황계실 571-239-6054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 5. 화 5.5. 3차고 Wolf/Sub Zero 주방, 커스텀 벽난로 하드우드 바닥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야외 주방, 벽난로, 연못, 분수, 데크, 음향 시스템 등)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군



jglconstruction.com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센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중국 "WTO 특혜 안 받겠다" - 개도국 지위 내려놨다

트럼프 1기부터 요구, 6년 만에 수용 중국 "다자무역시스템보호위한것" 외신 "미와무역협상논쟁거리 없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서 개발도상국에 부여되는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SDT)를 더 이상 요구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그간 중국의 '개도국지위자발적포기'를 요 구해왔다는 점에서 원활한 무역협상 을 위해 중국이 결단을 내린 것이란 해 석이 나온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개발구 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책임있는 주요 개도국으로서 중국은 현재와 미 래의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 및 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 다. 리 총리는 제80차 유엔 총회 일반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 중 으로, GDI 고위급 회의는 유엔 총회와 는 별도로 중국이 주재했다.

WTO는 개도국에 규범 이행 유예,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 원, 농업·식량안보 등 일부 분야에 대



신장위구르자치구 70년 행사 찾은 시진핑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장위구르자치구 설립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성도 우루무치를 찾았다. 이날 리창 국무원 총리는 세계개발구상 고위급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대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보호 조치 등 특혜(SDT)를 보장하 고 있다. 개도국 정의나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WTO에 속한 약 160개 국이 스스로 개도국 선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회원국이 이의 제기를 할 경 우협의 과정을 거처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행 정부 때인 2019년 7월 'WTO 개도국지 위 개혁'을 공식 발표하고 경제 규모가 큰 중국과 한국 등 7개국에 대해 "사 실상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WTO에

서 개도국 특혜를 받는 등 제도 남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0일 내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 지 않으면 WTO 협상에서 더는 인정하 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한국은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했다. 1995년 WTO에 가입하 며 개도국 선언을 한지 약 25년 만이었 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개도국 지위 를 유지 중이다.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

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라면서도 "중국은 영원히 세계 최대의 개도국이며 개도국의 지위와 정체성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융 상 무부 WTO국장 역시 "주요 개도국이 자 WTO 핵심 회원국인 중국은 10일 전 '어업보조금협정' 발효를 촉구했다" 고 밝혔다.

이는 서방 선진국에 맞서 글로벌 사 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맹주를 추구하는 중 국이 개도국이라는 명칭만 유지한 채 혜택은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 버그통신은 "중국이 WTO 개혁과 관 련해 미국과의 논쟁거리를 제거했다" 고 평가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역 원활 화, 보조금, 반덤핑, 전자상거래 등 20 여 개 WTO 협정 전반에 개도국 특혜 조항이 들어 있다. 이번 포기 선언으로 중국은 한국 등 선진국과 동등한 의무 를 부담하게 된다. 한국으로선 중국과 벌이고있는 무역 경쟁에서 숨통이 트 일수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 연구원장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농식 품·소비재 수출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 이 있고, 중국내 한국 기업의 기술 유 출과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 울러 통관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 회원국간 협력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무역 원활화 조치가 중국에서 개 선될 경우에도 한국 기업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신경진 특파원, 김원·하수영 기자

KT "펨토셀관리부실" 인정, 고객 2만명 위약금 면제 검토

"전 국민께 불안, 걱정, 심려를 끼쳐 죄 송하게 생각한다."

책임 인정, 사과 외엔 김영섭 KT 대 표가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다. 24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가 연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다. 과방위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사실상 이날 회 의를 'KT 청문회'로 진행했다. 이날 김 대표는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 출된 2만여 명에 대한 번호 이동 위약 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국회 과방위원들은 KT가 무단 소액 결제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해킹 사태 를 은폐하려한 것 아니냐며 김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당초 KT는 피해 인 원과 금액을 278명, 1억7000만원으로 발표한 뒤 1주일만에 362명, 2억4000만 원으로 바꿨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선 1차 브리핑에서 5561명의 IMSI(가 입자식별번호)가 유출됐다고 했지만, 2차 브리핑에선 IMEI(단말기식별번 호) 등의 추가 유출을 인정했다. 김 대 표는 "분량(데이터)이 많아 시간이 걸 렸고,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다 보니

무단 소액결제 문자인증도 뚫려 김영섭 KT 대표, 청문회서 "죄송"

서버해킹 의혹, 복제폰 우려도 나와 전문가 "정부 부처도 전수조사를"

김영섭 KT 대표(오른쪽)가 2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과방위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왼쪽)도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랬다"고 해명했다. 사퇴 요구에 대해 선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해킹 사태 범행 도구로 지 목된 불법 기지국 펨토셀 관리에 대해 선 "펨토셀 회수 관리가 부실했다. 사 고 이후 펨토셀이 (서버에) 붙지 못하 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KT는 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자체 펨토셀(20만대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KT는 무

인승 과성에서 ARS뿐 아니라 문자 인 증도 뚫린 사실도 처음으로 인정했다. 김 대표는 "피해 본 362명의 소액결제 764건에는 문자 인증도 일부 포함됐 다"고말했다.

서버 폐기와 관련한 거짓 해명도도 마 위에 올랐다. 앞서 한국인터넷진흥 원(KISA)은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제 기한 의혹과 관련해 8월 12일 해킹 의

단 소액결제를 위해 거쳐야 하는 본인 혹이 있는 서버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 반, KT는 8월 1일 이들 폐기했다며 자 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KT 측이 8월 1일이 아닌 6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서버를 폐기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부적절했다"며 "은폐 의도는 없었다" 고 해명했다.

복제폰 제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KT가 인증키 등은 유출되

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복제폰 위험 성이 있지 않냐"는 질의에 류제명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KT가 신고했는 데 조사하면서 KT 말에 의존하지 않 고 철저히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문가로 청문회에 참석한 김 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프랙을 통해 지적된 해킹 사고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프랙은 KT 이외에 정부 부처도 해킹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 수는 "탐지, 방어, 무력화란 사이버 보 안의 3축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부처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서울 금천·경기 광명 등에 초기 피해가 집중된 이유와 관련, 소형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다닌 피의자 A 씨(48·중국 국적)에게서 "집이 근처라 서 해당 지역을 돌아다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와, 공범인 B씨(44)를 컴퓨 터 등 이용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25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여성국·손성배·오현우 기자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ve Exam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Cataract Laser Surgery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안구 건조중 치료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Dry Eves Therapy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Soll Flotor of GUTH!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

VA 센터빌 MD 락빌 301-881-1000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Kyung Hee University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의)

LCA Member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대한민국 🛆 🖯 **중앙일보**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대통령 보고 때 '소통 실수'…행안부, 부군수에 조치 요구 논란

7월 산청 호우 때 '허위보고' 논란 대통령 "호우피해 없나" 질문에 정영철 산청부군수 "없다" 대답 토사유출 거론되자 "인명피해 의미" ^{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극한 호우 때 '대통령 허위 보고' 논란이 일었던 정 영철 경남 산청 부군수를 '신분상 조 치'하라고 산청군에 요청한 사실이 확 인됐다. 정 부군수의 호우 피해 상황 보 고가 부적정해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직기강

확립 관련 유의사항'을 전국 지방자치 단체에 보내기도 했다. 사실상 잘못된 보고를 하면 문책받을 수 있단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면서 공직 사회가 술렁

24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복 무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말 산청군 에 정 부군수를 훈계 조치할 것을 요구 했다.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단 이유에서다. 훈계는 법상 징 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는 아니지만,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일 종의 경고성 조치다.

행안부는 지난 7월 21일 산청을 찾은 이 대통령에게 한 정 부군수의 피해 상

황 보고를 문제 삼았다. 당시 '산사태 위험이 큰) 산불 발생 지역에 피해가 없냐'는 이 대통령 물음에 정 부군수 는 '피해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 난 3월 대형 산불이 났던 산청 시천면 에서도 호우로 토사가 쏟아져 일부 피 해가 있었다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대 통령 허위 보고' 논란이 일었다. 정 부 군수는 '산불 피해 지역에는 인명 피해 가 없었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 해명했 다. 하지만 행안부는 당시 정 부군수의 보고가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사 실과 다르게 보고할 의도는 없었더라 도 엄중한 상황에서 업무를 정확히 파 악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고를 한 사실 ▶세부적인 현황 을 파악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보 고해 정책 결정자 판단 등에 혼란을 초 래한 점을 이유로 공무원의 성실 의무 를위반했다고 봤다.

행안부는 지난 18일 전국 17개 시·도 에 '공직기강 확립 관련 유의사항 안 내'라는 공문도 보냈다. ▶현장 확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 보고 ▶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고 받 은 대략적인 상황을 토대로 개인적인 추측을 반영한 보고는 지양하란 내용 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지자체들은 움츠러드는 분위 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고를 잘

못한 일들이 잦으니, 공직기강 확립 차 원에서 유의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 같 다"면서도 "말이나 보고를 잘못해 욕 을 먹을 순 있는데, '성실 의무 위반'으 로 문책이나 징계까지 받을 수 있게 되 니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할 수밖에 없 다"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장관 에게 공무원이 중요 보고를 하는데, 사 실을 오인했거나 준비가 덜 됐으면 그 건 기강의 문제"라면서도 "사람이 말 하다가 실수하거나 기억이 헷갈릴 수 도 있으니, 그것만 가지고 징계까지 내 리진 않는다. 그래서 훈계를 한 것"이 라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 문희철 기자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필수 어기면 11월부터 과태료 300만원

해양사고사망·실종자 81% 미착용 내달 19일부터 계도기간, 11월 단속

앞으로 2인 이하 조업 어선에 승선하 는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선장은 물론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선 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어선을 불법 개조하면 선주뿐 아니라 요구에 응한 업체도 동일한 처 벌을 받는다.

24일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부터 소규모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 및 인명 피해 예방 대책을 시 행하다고 밝혔다.

우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 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을 개정해 2인 이하 어선은 태쑹·쑹 랑 등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 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한다. 내달 19 일부터 계도기간 2주를 거친 후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그간 구명조끼 미착용은 어선 전복 등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키우는 요 인으로 지목돼 왔다. 한국해양교통안 전공단이 최근 5년간 인명피해가 발생

한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전체 해양사고 사 망·실종자의 약 81%가 구명조끼를 입 지 않은 상태였다. 해수부는 연근해 어 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 중이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도 도입한 다. 어선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것을 업 으로 하려는 자는, 어선법에 따라 일정 한장비와 인력·시설을 갖춰야할뿐아 니라 해수부에 등록해야만 영업을 할 수있게된다.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 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 국내 어선의 대 부분은 10t 미만 소형 FRP어선이다. 제작시 악취가 발생하고, 다듬는 과정 에서 분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원 에 시달린다.

임태호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소형 어선 건조와 수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보니 영세한 업자들이 많은데,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작업장을 산간 오지에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김경희 기자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처벌 안 원해도 수사 가능

피해자, 법원에 보호명령 청구가능 대통령 엄정 대응에 법·제도 정비

정부가 최근 잇따른 살인 사건 등으로 문제가 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을 강 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처벌 의사 여부 와 상관없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 고,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7월 경기 의정부·울산·대 전 등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이 발 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선 법·제도 정비가 중점 적으로 다뤄졌다. 스토킹 피해자가 경

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기로 했다. 조치 지연 시 수일~수 주의 보호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 유다. 이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스토킹·교제폭력 신고에 따 른출동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피해자 가해자 상황을 판단해 수 사 개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피해자 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법기관 이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구속·유치 등 잠정조치도 적극 활용한다. 스토킹 가 해자가 접근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면 구속 등 엄정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부턴 경찰, 피해자 지원기관(상 담소 등)이 협력해 수사 연락을 거부하



거나 신고를 반복하는 고위험군 피해 자를 집중 관리한다. 신고 초기 경찰이 상담을 연계하면 상담소가 응급 심리 상담에 나서고, 임시 숙소도 지원하는 식이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모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 라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남과 북은 두 국가, 적대성 해소에 초점 둬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국제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국제 정치적으로 두 국 가였고, 지금도 두 국가"라며 "변화의 초점을 '적대성 해소'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실용적 차원에서 북한 체제를 인정해 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인정하 는 것처럼 들릴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 기본협정 추진 방향'이란 주제의 세미 나 환영사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

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 이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 날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 에 서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도 결이 다른셈이다.

다만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 설에서 '평화공존 3원칙'을 재차 언급 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도 밝힌 평화 공존 3원칙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 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 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정 장관이 "정부는 이 3원칙을 토대 로 남북 평화공존,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 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분 석을 뒷받침한다.

또 정 장관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 력의 방향으로 흔늘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 평화공존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1972년 '동·서 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하는 '남북 기 본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 은 맥락이다.

정영교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하 치이나 오래가는 임플란트"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 잇몸치료 - 치아교정 Periodontal Orthodontics Surgery Invisalign

- 치아성형 응급환자 신경치료 **Root Canal Emergency** Veneer Lumineers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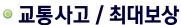


치과 베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 개인상해 보상청구
- © Chapter 7: 개인 파산
-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 비지니스 관련 민사 소송





Regina Domingo Chris Shin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우리말 바루기

'여고'는 있어도 '남고' 는 없다

고등학교 가운데는 남자 또는 여자만 다니 는 학교가 있다. 물론 남녀공학도 있다. 그 런데 이상하게도 남자만 다니는 학교에 ' OO남자고등학교'처럼 '남자'나 '남'이란 이름을 붙인 곳은 거의 없다. 간혹 '남'이 붙은 곳이 있긴 하나 이는 남자를 뜻하는 남(男)'이 아니라 남쪽을 뜻하는 '남(南)' 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〇〇여자고등 학교'는 많다. 여학생만 다니는 학교는 대 부분 이렇게 '여자'라는 이름을 붙여 여성 만 다니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다. 줄여 '〇〇여고'라 부르기도 한다.

학교 이름만 이런 것이 아니다. 여의사 여배우 여교사 여직원 여대생 등 직업을 나타내는 말 앞에도 '여'자를 넣어 여성임 을 밝히는 경우가 흔하다. 여성과학자·여 성산악인 여성대변인 여성운전자 등 '여성 '이 들어간 말도 적지 않다.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여자에게만 굳이 '여'나 '여자' '여성' 등 을 붙이는 것은 성차별적 표현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남의사' '남배우' '남과 학자'등의 말을 거의 쓰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이 차별적 용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 다. 과거부터 쓰이고 있는 '여류소설가' ' 여류화가' '여류작가' 등 '여류(女流)'란 단어도 마찬가지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 낀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 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 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①중앙일보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디케의 저울

불완전한 법, 그 책임도 유권자 몫

최근 보수 정치 인플루언서 찰리 커크가 암살당 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증오가 정치를 삼키고, 신념의 차이가 기어코 총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는, 우리 시대의 가장 섬뜩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커크는 젊은 보수층을 겨냥해 '터닝포인트 USA'를 설립하고, 거침없는 언변으로 미국 우파 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인물이다. 그의 주장은 때 로 선동적이었고, 반대자들에게는 분노의 대상 이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가 남긴 논쟁의 크 기만큼이나, 미국 사회가 앓고 있는 깊은 병을 상 징적으로 드러낸다.

소셜미디어는 예상대로 추모와 조롱, 음모론으 로 들끓었다. 이 아수라장은 미국이 단일 국가라 는 사실조차 의심케 한다. 우리는 같은 땅에 살지 만, 전혀 다른 현실을 보고 다른 진실을 믿는 부족 으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고 있다. 상대 는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아닌, 제거해야 할 '적' 으로 규정된다.

물론 역사 속에서 분열의 골이 깊었던 시대는 있었다. 노예제를 두고 나라가 두 동강 났던 남북 전쟁기(1850~70년대)가 그랬고, 부패와 경제적 격변으로 신음했던 도금시대(1870~90년대)에는 선정적인 '옐로 저널리즘'이 지금의 소셜미디어 처럼 대중의 분노를 부추겼다.

민권 운동, 베트남 전쟁, 워터게이트 사건 등이 사회적 균열을 일으키던 1960~70년대의 상처도 여전히 생생하다.



김한신 변호사 한미정치경제연구소 이사장

이 시기를 지나면서, 민주당은 사회 개혁과 복 지 확대를 주도하는 진보 정당으로 자리 잡았고, 공화당은 점차 보수 정당으로 굳어졌다. 이 정당 구도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증폭되고 있다. 여 기에 '분노의 산업화'가 기름을 붓는다. 현대 정치 담론은 설득의 과정이 아니라, 자기 진영을 향한 '분노의 퍼포먼스'가 되었다. 더 자극적인 발언. 더 격한 비난이 곧 관심과 영향력, 그리고 정치적 자금으로 직결된다.

과거의 갈등이 특정 쟁점을 중심으로 벌어졌 다면, 지금의 분열은 존재론적이다. 알고리즘이 만든 '필터 버블'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신념을 강 화하는 정보만 소비하며 괴물이 되어간다. 같은 사실도 전혀 다른 '진실'로 해석되고, 불신과 증오 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

이런 현상이 통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붕괴와 경제적 불안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소속감과 정 체성에 목말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복잡한 문 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명확한 '적'을 제시하는 선동가에게서 위험한 위안을 얻는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견해의 공존 을 전제로 한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의회, 투 표, 토론의 제도와 법을 만들어왔다.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표현 방식 이다. 강력한 이민 단속이나 급격히 인상된 H-1B 신청 비용 같은 문제도 결국은 법의 적용과 집행 의 문제다. 그 방법에 동의한다면 해당 집행 세력 을 계속 지지하고, 반대한다면 다른 정치 세력에 게 표를 주어 교체하는 것이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어떻게 그런 법이 있느냐"고 분노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그런 대표자를 뽑았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은 바 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결코 힘이 곧 정의였던 암흑기나, 총잡 이가 법보다 빨랐던 서부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 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 질서는 법에 의한 지배라 는 문명적 합의 위에 서 있다. 법은 불완전할 수 있 고 때때로 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결국 시민, 즉 유권자의 손에 있다.

찰리 커크의 죽음은 미국 사회를 갈림길에 세 웠다. 이 비극을 또 다른 증오의 자양분으로 삼아 내전과 같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인가, 아니면 법 과 제도라는 마지막 보루를 통해 깨어진 합의를 재건할 것인가.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이 더 이 상 피로 얼룩지지 않기를, 폭력이 아닌 투표를 통 해 균형을 잡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이아침에

산속에서 열린 칠순 잔치

노동절 연휴를 맞아 계획했던 산악회 캠핑이 산불 로 인해 갑작스레 취소되었다. 애초에 캠프장에서 하기로 했던 써니 언니의 칠순 생일파티가 '스위 처 폴스(Switzer Falls)' 토요 산행 후로 변경되었 다.

산행 후 생일파티라기에 산악회 가입이 얼마 안 된 나는 당연히 근처 식당에서 하는 줄 알았다. 하 지만 단체 카톡방에 공지가 뜨자마자 분위기는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누구는 떡 을 맞춰온다고 하고, 열무 물김치며 각종 나물류 , 과일과 음료수, 즉석 부침개까지 준비하겠다는 댓글이 우수수 달렸다.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들었다는 한 남성회원의 돼지갈비찜과 백김치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평소 조용하던 분이 손수 만든 음식이라는 점에서 감 동이 더 컸다. 주인공이 마련한 LA갈비와 정성 어 린 음식들이 하나 둘 모이면서, 산행 후의 조촐할 줄 알았던 생일 잔치는 어느 뷔페식당 부럽지 않 은 '산상 연회'로 바뀌었다. 한국인의 정을 진하게 느낄수 있었다.



최숙희

무엇보다 특별했던 건 생일 떡이었다. 산행 중 주운 도토리를 일일이 까서 곱게 빻아 쌀가루와 섞어 만든 건강 떡이다. 당뇨가 있는 친구를 위해 준비한 맞춤형 선물이었기에 감동이 더했다.

떡 위에 일곱 개의 촛불이 켜지고, 회원들이 십 시일반 모은 축하금과 손 글씨 카드가 전해지자, 주인공의 눈가가 붉어졌다. '열심히 산행해서 80 세 생일에도 고기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농담 섞인 말에 모두가 웃음과 박수로 화답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명절이나 기념일은 더 쓸쓸하게 다가온다. 가족도 오랜 친 구도 가까이 없기에 특별한 날일수록 마음 한 켠

이 허전해진다. 하지만 이렇게 공통의 취미로 모 인 사람들과 함께 걷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생 일을 축하하는 순간들 덕분에 외로움은 한층 가 벼워진다.

그날 산속에서 열린 특별한 생일 잔치는 단지 한 사람의 칠순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함 께 걷고, 땀을 흘리고, 음식을 나누며 쌓아가는 연대감이 외로운 이민자의 삶을 어떻게 지탱해 주 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땀을 흘리며 산을 오 르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단순한 취미생활 이 상의 의미가 있다. 삶의 활력소 역할을 하며 우리 가서로의 존재를 통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있 는지를 보여준다.

그날의 생일파티는 장소도 형식도 메뉴도 모두 예상 밖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욱 따뜻 하고 더욱 오래 기억에 남았다. 어쩌면 진짜 잔치 는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서로의 곁에서 함께 걷 고, 웃고, 나누는 삶. 나또한 언젠가 칠순을 맞는 날, 오늘처럼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런 생일 잔치 를하고싶다.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 회사설립/합병 ●국제합작투자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부동산 투자 개발

Business / Real Estate

703-973-8700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혼앞빌딩3층

한강버스 초기 흥행은 성공적, 시간 단축이 관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7번 출구. 최 근 서울시가 도입한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버스 잠실선착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출구다. 이곳에서 한강시민 공원쪽으로 12분 남짓 걸어가니 3층짜 리 선착장 시설이 나타났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성인 남자의 보통 걸음으로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 기다. 선착장 앞에는 "한강버스 9월 18 일 출발합니다"라고 적힌 안내 현수막 이 걸려 있었다.

이날은 한강버스 운항 개시 이후 엿 새째면서 화요일이었다. 첫배의 출발 시간(오전 11시)이 1시간가량 남았는 데도 벌써부터 승객이 몰려드는 모습 이었다. 가을 날씨에 맞춘 듯한 편안한 옷차림에 배낭을 메고 나들이용 모자 를 쓴 시민들이 많이 보였다. 자전거용 헬멧에 운동복을 입은 '라이더족'(자전 거 이용자)도 눈에 띄었다.

파란 재킷을 입은 직원들이 개찰구 앞에 서서 승객들에게 "번호표를 받아 야 한다"고 안내했다. 승객이 계속 몰 려들자 첫배는 만석이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배차 간격은 1시간 30분이다. 한강버스는 수상 안전을 위해 입석을 금지하고 모든 승객이 좌석에 앉도록 하고 있다.

뱃머리에서 강변 관람 가능

기자가 탄 배는 한강버스 101호 경복 궁호, 탑승정원은 199명이었다. 배 안 의 좌석 배치는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떠오르게 했다. 창가 쪽과 통로 쪽으로 좌석 구역이 나뉘었는데 한강이 잘 보 이는 창가 쪽이 인기를 끌었다. 앞좌석 과 뒷좌석 사이의 간격은 비행기처럼 좁은 편이었다. 뒷좌석 승객이 몸을 움 직이면 그 느낌이 앞좌석에도 전달될 정도였다.

뱃머리에는 강바람을 맞으며 한강 주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마 련돼 있었다. 서쪽으로는 남산의 N서 울타워, 동쪽으로는 잠실의 롯데월드 타워가 눈에 들어왔다. 한강대교와 한 강철교를 지나갈 때는 노들섬과 여의 도 63빌딩이 가깝게 보였다. 날씨가 좋 을 때는 유람선을 탄 듯한 낭만을 느낄 반했다.

캔커피·베이글 등 간식도 판매

노미석 테이블보다 약간 작은 느낌이 었다. 간단한 간식을 먹거나 스마트폰 을 올려두기엔 무난한 크기였지만, 서

울시가 홍보한 것처럼 노트북 작업을 하기엔 다소 불편했다.

잠실에서 가족과 함께 관람 목적으 로 탔다는 이재홍(73)씨는 "강 가운데 에서 주변을 보니 서울의 모습이 새롭 게 보이면서 시야가 훨씬 넓어진 느낌" 이라며 "진작에 이런 배가 다녔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잠실 에서 망원 선착장으로 간다는 허유혁 (33)씨는 "배 위에서 한강의 운치를 느 끼며 주변을 구경하는 게 신선하면서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다만 운항 시간 이 오래 걸려서 출퇴근용으로 이용하 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선내 소음과 진동은 승객에 따라 불 쾌감을 느낄 수도 있을 정도였다. 뒤쪽 좌석으로 갈수록 엔진의 소음이 심해 졌다. 시범 운항 때는 엔진 소음을 덮기 위해서인지 음악을 시끄럽게 틀었다는 승객 후기도 있었지만, 이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배를 선착장에 가까이 붙 일 때는 출렁출렁 흔들림이 느껴졌다.

운항 사흘 만에 승객 1만 명 넘어

이번 주는 평일에도 가을 나들이 승 객이 몰리면서 일부 시간대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 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운항 사흘 만 에 탑승객 1만 명을 돌파했다. 관건은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다. 속칭 '오픈빨'이라고 하는 초기 인기몰 이가 잦아든 뒤에도 높은 탑승률을 유 지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 능하다. 그러자면 출퇴근 직장인을 포 함한 단골 승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 는게 중요한숙제다.

당초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도입하는 목적으로 '편안한 출퇴근길'을 내세웠 다. 오세훈 시장이 2023년 3월 영국 런 던 템즈강 페리를 타본 뒤 이 사업을 구 상했다고 한다. 한때 경기도 김포 경전 철(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 혼잡도를 덜어주는 대안으로 한강버스를 검토했 지만, 결국 김포 노선은 제외했다. 김병 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지난 19일 라 디오 인터뷰에서 "정확히 말하면 출퇴 근용이라기보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강에서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가져간 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행 타면 잠실~여의도 1시간 이내

현재 동서쪽 종점인 잠실~마 배 안의 간식 판매대에선 캔커피와 곡 구간의 예상 소요 시간은 2시간 베이글·츄로스빵을 팔았다. 좌석별로 7분이다. 대기업·금융회사 등이 모여 설치된 접이식 테이블은 비행기 이코 있는 여의도를 기준으로 보면 잠실~여 의도는 1시간 23분, 마곡~여의도는 47 만계산한 것이다. 분이 걸린다. 반면에 지하철 9호선 급 행을 타면 여의도~종합운동장은 22분,







■ 한강버스 운항 엿새째인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강물을 가르며 운항 하고 있다. 🛮 한강버스 내부 좌석을 비행기 좌석처럼 창가 쪽과 통로 쪽으로 나눠서 배치한 모습. 한강 이 보이는 창가 쪽이 인기다. 🖸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선착장 안에서 시민들이 배를 타기 위해 줄지어

지하절 5호선으로 마곡~여의도는 22 분이 소요된다. 출퇴근 시간대 신속한 이동이 목적이라면 한강버스가 지하 철보다 불리한 상황이다. 선착장이나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대 기 시간을 제외하고 순수한 탑승 시간

한강버스는 다음 달 10일부터 평일 운항 개시 시간을 오전 7시로 앞당기고

급행 노선(배자 간격 15문)을 신설할 예정이다. 급행은 잠실~여의도~마곡 의 선착장 세 곳만 정차한다. 선착장 네 곳(뚝섬·옥수·압구정·망원)을 건너뛰 는 만큼 선착장에 배를 붙였다 뗐다 하 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잠실~여의도 구간의 소요 시간은 1시 간 안쪽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70% 지분 보유

한강버스의 사업구조는 '반관반민' 이란 특성을 갖고 있다. 선박을 사들 여 한강에서 운영하는 주체는 ㈜한강 버스라는 신생 회사다. 서울시는 227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한강버스 선착장 일 곱 곳의 설치를 맡았다. ㈜한강버스가 선박 구매와 운영, 부대시설 조성 등을 위해 조달한 사업비는 1523억원이다.

서울시는 최근 "㈜한강버스는 민간 회사"라는 보도 설명자료를 냈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을 통해 사업비의 상당 부 분을 책임지는 구조다. 원래 ㈜한강버 스 지분의 51%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 사(SH), 나머지 49%는 이랜드 계열의 한강 유람선 업체인 이크루즈가 갖는 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랜드그룹 이 추가 투자에 응하지 않으면서 자금

느긋하게 가을 정취 느끼면서 63빌딩·노들섬 등 한강변 관람

선착장엔카페·편의점 등 운영 부대시설 성패에 사업성 달려

"한강서 대중교통 정시성 구현" 소요시간 지하철보다 더 걸려

조달 계획도 틀어졌다.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에서 박수 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를 건 조하고 사업을 꾸리는 비용을 SH와 이 크루즈가 같이 내도록 계약돼 있다. 그 런데 이크루즈가 이 돈을 안 내고 있 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 울시장은 "지분 비율을 7(SH) 대 3(이 크루즈) 정도로 일단 바꿨다. 투자한 만큼 권한을 행사한다는 원칙은 지키 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한강버 스를)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가능성 을 보이면 (이크루즈가) 오히려 투자하 고 싶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가 되 면 늦다. 동업 관계에선 위험도, 손해의 가능성도 같이 나눠야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날씨 변화에 취약한 것은 한강버스 의 약점이다. 지난 20일에는 팔당댐 방 류량 증가를 이유로 한강버스 운항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홍수·태풍 등으로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겨울 철에 한강 물이 얼어버리면 한강버스 가 다니기 어렵다. 서울시는 연간 20일 정도는 결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정완 논설위원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지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챕터 7·챕터13·학자금융자 감면 서브챕터 5·챕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mark>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mark>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시 설

'E·N·D구상' 현실화하려면 단계별 검증이 필수

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 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단계를 거쳐 포괄적인 대 화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 공 존과 공동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며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 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며 군

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가장 손쉬운 교류 단계부터 시작하겠 다는 정부의 구상

이 대통령 '교류-정상화-비핵화' 해법 제시 검증절차 없인 자칫 북핵 용인하는 꼴 될 수도

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단번의 해법보다는 단계 별로 성과를 쌓아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작은 진전이 라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가 실용외교로 비칠 수 있 다. 이 대통령의 구상대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 선되고 결국 비핵화로 이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 가 없을 것이다.

비핵화는 한반도 안보의 절박한 문제다. 이 대통령 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단계적 해법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 말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 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호응할지 여부다. 김정은 국 평화는 요원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4일)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 무위원장은 불과 며칠 전인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 서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 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는 위헌"이라고까지 못 박 았다. 이는 'E·N·D 이니셔티브'가 출발부터 녹록지 않 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칫 정부가 교 류나 관계 정상화에만 매달리다 정작 비핵화에는 손 도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만 치중하다 비핵화 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변화 만 기다리다 대화의 기회를 놓친 것을 반면교사로 삼 아야 한다.

> > 설령 북한이 대 화에 나선다 해도 검증을 거부한 채 제재 해제만 챙기 거나, 트럼프 행정

부가 비핵화 포기라는 북한의 주장을 덜컥 받아들인 다면 북한 핵만 용인하는 최악의 결과가 벌어질 수 있 다. 따라서 정부는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긴장감 속에 서 향후 정책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북 한의 행동에 따라 대북제재를 원위치(스냅백)하거나 추가 제재를 가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치밀 한 로드맵이 준비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이름이 아니다. 비핵화를 얼마 나 추동하고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본질이다. 대화와 관계 정상화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곤란하다. 북한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린다면 한반도의 진정한

대법원장은 부르고 실세 비서관은 못 부른다는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 김현지 대통령실 총 무비서관을 두고 충돌했다. 11월 6일로 예정된 국회 운 영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를지를 놓고 "불러 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못 부른다"는 민주당이 맞섰 다. 여야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간사 협의로 넘겼다. 삼 권분립 훼손 논란까지 무릅쓰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 문회를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파죽지세가 실세 비서 관 앞에선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김 총무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을 시민운동 시절 부터 줄곧 보좌하는 핵심 측근이다. 제대로 찍힌 사진 이 없을 정도로 두문불출하면서도 중요한 보좌 업무 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통령실의 인 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그가 국회 운영위의 '2025 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는 제외됐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출석하면 된다"며 야당이 총무비서관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고

이에 국민의힘은 "14대 국회 이후 총무비서관은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따졌다. 민주당에 선정부출범후 6개월이 '허니문' 기간이라며 "정부에 협조적인 게 관례"라는 말도 했다.

불과 이틀 전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 문회를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 '허니문'을 얘기하는 건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유언비어에 가까운 조 대법 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비밀회동 의혹을 증폭한 뒤 이를 빌미로 청문회 안건을 통과시켜 놓고는 실세 비서관 증인 채택 문제 앞에서 갑자기 꿀처럼 부드러 워지자는 게 말이 되는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도한 사법부 공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 라고"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때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엊 그제(23일)엔 공수처 수사 영역을 확대하는 법안을 법 사위 소위에 상정해 대법원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 위를 확대했다. 김 총무비서관 증인 채택이 논란이 된 어제 운영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해 위 증한 증인을 국회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고발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가 종료되면 고발이 어려웠던 현 행법을 바꾼 것은 한 전 총리 등 전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국민의힘 시각이다.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청문회장으로 불러내려 하면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은 감싸는 모순 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성 지지층만을 의식해 정치 권의 순리와 원칙을 내던지는 행태다. 원칙과 형평을 저버린 이런 선택적 태도는 결국 국민 앞에서 스스로 권력의 편향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99.9 일본 법원 만들자는 건가

정효식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유죄율 99.9% 사회는 천국일까, 지옥일 까. '99.9 형사전문변호사'란 제목의 드 라마가 묘사한 일본의 형사재판 얘기다. 주인공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여고생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중에서 자살 하는 일을 겪은 형사전문변호사다. "일 어난 사실은 단 하나"라며 입버릇처럼 되뇌며 0.1%란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무 죄를 입증해 나간다.

과거 일본 법원의 현실은 2016년 첫 방 영된 99.9 드라마보다 더 심했었다. 20년 전인 2005년만 해도 유죄율 99.99%, 무 죄율은 0.1%가 아니라 0.01%(1만 명당 한 명)에도 못 미쳤다. 드라마 덕분인지 2023년 유죄율 99.8%로 내려가고, 무죄 율 0.04%로 근소하게 올랐다(일본 법무 성 『2024년 범죄백서』).

이런 일본 사법을 '선의'로 해석할 수 도 있다. 선량한 경찰이 국민 세금과 공 권력을 동원해 성의를 다해 정밀하게 수 사하고, 이어 검찰은 자료와 증거로 입증 되는 사건만 기소하며, 판사가 공판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라고. 일본에선 경찰과 검찰 수사와 기소 단계부터 철저 한 조사와 확실한 증거 수집을 하고, 유 죄가 확실한 사건만 선별해 재판에 넘긴 다는 뜻에서 '정밀사법'이란 말로 설명 하기도 한다. 20년 전엔 기소율이 50% 를 넘었지만 2023년 기준으로 형사범의 36.9%만 기소하고 3분의 2(63.1%) 사건 은 불기소했다. 불기소의 대부분은 '혐 의는 있는데 사안이 경미하다' 등의 이 유로 처벌을 보류하는 기소유예(53.1%) 였다.

기소유예는 재판을 통해 유죄를 받은 게 아니지만 언제든 다시 수사받을 수 있 어 당사자 입장에선 인권침해적이고 억 울할 수 있다. 더구나 일본은 한국 헌법 재판소의 기소유예 취소 청구 헌법소원 처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도 없다. 국가 권력의 결정은 무오류라는 제국주의 시절 관념도 깔려 있다. 유죄율 99.9%의 또 다른 이면이다.

99.9% 일본 사법의 가장 큰 문제는 삼 착 의혹이다. 입법·행정권이 통합된 의 닌가.

원내각제여서 권력의 추가 확연히 기울 어 사법부 독립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이 지명해 천황이 임명하고, 나머 지 14명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하는 게 대표적이다. 내각이 나머지 일반 법관 임명권도 갖는다. 내각관방의 인사검증 등 입김에서 법원이 자유로울

이런 일본을 여당이 추진 중인 형사사 법의 개혁 방향이 닮아가는 건 어쩐 일 인가. 윤석열 원죄를 짊어진 '검찰 폐문', 공소청 전환만 해도 형사사법 78년 만의 대변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더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수 사청)까지 신설하는 건 수사권을 경찰 중심으로 통일하자는 얘기다. 여기에 국 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각 기관의 수사권을 조정·통제하자는 건 일본 내각부의 국가공안위원회-경찰 청이 모델 아닌가.

더 심각한 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정청래 더

유죄율 99.9% 일본 사법의 오명 '입법·행정' 권력과 사법 유착 의심 차라리 내각제 개헌 하면 어떤가

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필두로 여당의 우격 다짐식 '사법부 종속' 요구다. '조희대·한 덕수 회동설' 음모론으로 불을 지피더니 공수처법을 개정해 청부 수사를 시킬 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대법원장을 포 함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하는 '대법관 증원법'과 국회 5명, 법률 가 단체 5명 등 외부 인사 3분의 2로 구 성하는 '법관평가제 법안'에 이어 법무 부(1명), 대한변협(4명), 법원 판사회의 (4명)가 추천하는 법관을 임명하는 내 란전담재판부 신설도 밀어붙인다. 헌법 101조(사법권), 103조(재판 독립), 104조 (법관 임명권) 등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에도 막무가내다. 내각 제인 일본도 이런 식으론 안 한다.

이럴 바에 여당 주도로 헌법의 권력 분 립 시스템을 다시 쓰면서 내각제 개헌을 권통합은 아니더라도 정부 권력과의 유 추진하는 게 국민 앞에 당당한 방법 아 사회부장

중앙일보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iad.joong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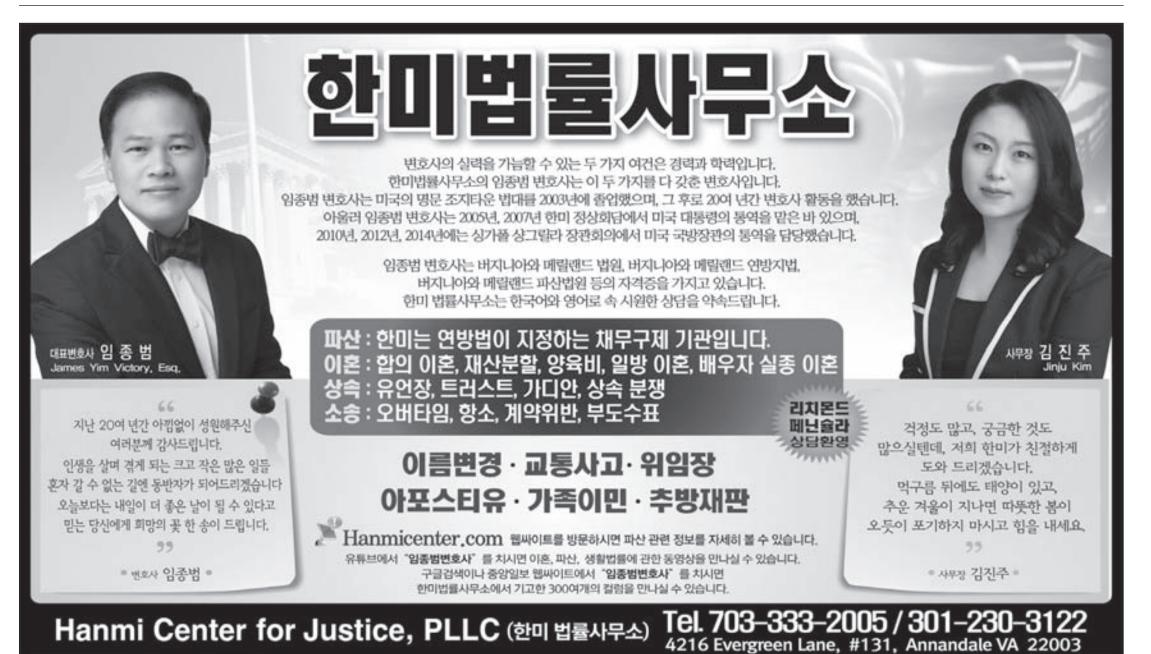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불편·불만 처리센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가00195 저작권자(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전재계약제휴사미국THENEW YORKTIMES, THE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FINANCIAL TIMES 일본時事通信, 日本經濟新剛 구독료 | 월정 20,000원/1부 1,000원





CHRISTIAN MUTUAL MED-AID 와 함께 하는

건강한 인생 & 의료비 나눔

크리스천들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의료보험이 아닌 크리스천들을 위한 의료비 나눔 사역 • CA, DC, MA, NJ, RI 주: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 면제 혜택

CMM 회원 혜택



• IN, MO 주: 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 월 \$45로도 질병당 입원 및 수술비 최대 \$150,000

30여 년의 신뢰와 경험, CMM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 25세까지 부양 자녀 1유닛 회비 적용
- 글로벌 의료 서비스
 - 미국, 한국 포함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
 - 원하는 의사와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



의료비 나눔

- 질병당 최대 \$150,000
-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000,000 추가
- 가입 전 질환에 대한 의료비 나눔 범위 확대



- 한국어와 영어 서비스 제공
- 간단하고 신속한 가입 절차
- 연중 언제든지 회원 가입 가능

지금 바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나에게 맞는 레벨을 확인하세요!







773-777-8889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가입문의: 773-777-8889 (Ext.5002) 동부지부 김준범 지부장: 917-535-1144, 917-500-1330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SEP. 25th - OCT. 2nd, 2025

씨끗하게손질하여먹기뿐이

생동 가다이 스페셜 특기네일

FROZEN H&G REX SOLE IQF



\$49.99 SECO

면접 중 모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홈쪽은 사전에 따라 조기품정 또는 수립자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Sterling, VA 30 Ridgem HM Dr. Shirling VA 20165

0

0

Centreville, VA 5900 Control to Contin Control to 59, 20121 Chantally, VA 1385 Metrowch (I Chantay, VA20151 Armendele, VA SSEA Port Royal Ro Springfest, vR 221 Ashburn, VA 43930 Fermivel Heat Pack Ashburn, VA 20141

Herndon, VA 490 Siden Street. Herndon, VA 20176 Efficiet City, MD 1801 Betimore National Efficiet City, MD 21045 Cetoravdie, MD 8000 deterors National 4 Cataravdia, MO21226 Rockville, MD 1902 West MILEO Bookwille, MD 20057 Gaithersburg, MD 221 Muthyllion of Rd. Battersburg, MD 20078

Sever Spring, MD 13025-A George Ave. Shee Steing, MO 20008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파이낸스

①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September 25, 2025 C



LENNOX) (TRANE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Carrier, Lennox 전문딜러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제대로 설치해야



703-333-2005 301-230-312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Dental Implant \$1 1,0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www.Hanmihomehealth.com (703)303-4556/t.(703)303-0988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기준금리 내려도 '모기지 5%대' 힘들다

금리 인하 반짝 효과 그칠 수도 지난해에도 7%대로 다시 튀어 소비자물가 오르면 반등 위험 전문가들 6.3~6.4% 전망 우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 만, 모기지 금리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 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준은 지난 17일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올해 안에 두 차례 추 가 인하를 예고했다. 모기지 금리는 7월 말 이후 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 라 하락세를 보여왔다. 프레디맥에 따 르면 금리 인하 직후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35%로, 1년 만에 최저치 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첫 금리 인하 직후 30년 모기지 금리가 6.08%까지 내 려갔지만, 이후 반등해 올 1월 중순에는 7%를 넘어서기도 했다.

'브라이트MLS'의 리사 스터터번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올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 기 때문에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기준 금리가 내렸어도 모기지 금리가 올해 안에 6% 밑으로 내려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다. 사진은 LA의 주택가.

"다만 9월 물가 지표에서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오르면 모기지 금리가 반등할 위 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모기지 금리는 연준이 직접 정하지 않는다. 국채 금리와 투자자들의 인플 레이션과 경기 전망에 좌우된다. 특히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모기지 금리와 밀접하게 연동된다. 최근 국채 금리는 고용시장이 약화하는 신호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

히 연준 목표치인 2%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면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리얼터닷컴의 대니얼 헤일 수석 이코 노미스트는 "중요한 것은 연준이 당장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향후 성장과 고 용시장, 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따 라시장이 연준의 행보를 어떻게 예측하 느냐이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올 해 말 30년 모기지 평균 금리가 6.3~6. 4%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

세하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6% 밑으 로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모기지 금리 하락은 주택 시장에 숨 통을 트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이 걸림돌이다. 2020년 이후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약 50% 상승했으며, 지난해 기존주택 판매는 30년 만에 최 저치를 기록했다.

스터터번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 이번 금리 인하로 바이어와 셀러가 일부 시장에 들어오겠지만 주택 시장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 모기지 금리가 추가로 떨어지고 집값 상 승세가 크게 둔화하거나 하락해야만 주 택 구입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

일부 전문가들은 집을 찾은 예비 바 이어가 굳이 금리 하락을 기다리기보다 는 현재 조건에서 구매를 결정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최근 금 리 하락을 기회로 삼아 기존 대출을 재 융자하려는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재융자의 경우 금리를 최소 1%포인트 낮출 수 있을 때 수수료 부담 을상쇄할수있다. 안유회 객원기자

베이비붐세대, 전체 주택 40% 소유

연방준비제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여 년 동안 부동산 소유 구조가 크게 바뀌 었다. 부동산 소유 비율은 단순한 세대 별자산 분포 구조가 아니다. 어느 세대 가 자산을 축적하고 주택을 매입하며 또는 뒤처지는지를 보여주는 인구학적 흐름을 반영한다.

연준자료에 따르면 세대별 부동산 소

유 비율은 1991년과 2025년 사이 극적으 로 변했다. 1991년 당시 침묵하는 세대 는 부동산의 절반 이상인 65%를 보유했 다. 나머지 35%의 대부분인 34%는 베 이비붐 세대가 차지했다. 그러나 2025 년에는 침묵하는 세대의 비율이 9%로 급감하고 베이비붐세대가 최대 소유 비 율 40%를 기록했다. 소득이 정점에 달

한 X세대의 점유율도 30%로 크게 늘어 부동산 소유를 양분했다.

침묵하는 세대의 부동산 소유 비율 급감은 고령화와 사망률 상승, 즉 세대 간 자산 이전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 할 수 있다. 1928~1945년생인 침묵하는 세대의 2025년 부동산 소유 비율은 9% 로자산 이전을 거의 끝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40%나 돼 자산 이전이 아직 멀었음을 보여준다.

젊은 세대의 부동산 진입은 세대별로

차이가 크다. 밀레니엄 세대의 소유 비 율은 같은 나이대였던 베이비붐 세대의 3분의 2에도 못 미친다. 주택 가격 부담 과 학자금 대출, 주택 구입 시기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밀레니엄 세대의 소유 비율은 주택 구입 적령기인 29세 이상 인구 비 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밀레니 엄 세대는 29세 이상 인구의 34%나 되 지만 주택 소유 비율은 21%에 그쳐 인 구규모대비소유비율이가장낮았다.











- 수리 전 가격 : \$650,000
- · 공사비(후불): \$45,000
- \$50,000 이상 이익 • 수리 후 가격 : \$750,000
- *집 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mark>"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mark>릅니다"

수리 후



\$999,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꾸어진 집, 벽돌, 마루바닥



\$1,05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드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많이 함



\$85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끝집, 아주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비엔나 싱글홈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1,07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차고 2







SE 타운

방 5, 화장실 3+1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모기지 끝나도 연금만으론 적자 불가피

가주 은퇴자 매년 평균 2868불 모자라 41개 주서 시니어들 생활비 절대 부족 지급액·물가 인상분 산정 기준 큰 불만

소셜 연금을 받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모기지 페이먼트가 끝난 뒤에도 사실상 적자 살림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 지급액은 물론, 물가 인상분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포털인 리얼터닷컴이 시니어 연구기관인 '노년 경제 지표'가 올해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무려 41개 주에서 모기지 완납시니어들이 소셜 연금을 받아도 적자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주거 비용 부담인 모기자페이먼트가 없음에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뜻이다. 시니어들의 살림이 가능한 곳은 델라웨어(연 1764 달러 흑자), 인디애나, 애리조나, 유타, 사우스 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앨라배마 등 9곳이었다. 〈표 참조〉

반면 가장 적자 폭이 가장 심한 곳은 버몬트로 연간 8088달러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들의 집중 거주 지역인 가주는 연평균 2868 달러, 뉴욕은 7248달러, 뉴저지는 7512 달러, 버지니아는 1596달러, 조지아는 516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물가가 높고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일수록 큰 적자 폭을 보인 셈이다. 동 시에 매년 소셜 연금의 상승폭이 물가 모기지 완납 시니어 소셜연금 생활비 분석

흑자 주	연간 흑자액(달러)	월 생활비	월 주거비	월 중간 혜택
델라웨어	1764	1992	555	2139
인디애나	1392	1900	504	2016
애리조나	1224	1874	531	1976
유타	888	1933	530	2007
사우스캐롤라이나	828	1860	486	1929

상승의 속도를 절대적으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비영리단체인 '시니어시티즌연맹 (TSCL)'이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설 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 의 2 가까이가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 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 적용된 물가인상분 (COLA) 2.5%에 대해 무려 94%가 '너무 낮다'고 응답했으며, 연금 증가 속도가 실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압도적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2024년 실제 체감 물가 상승률을 3%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정부 공식 통계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수치 다.

현행 COLA는 '도시 임금근로자소 비자물가지수(CPI-W)'를 기준으로 산 정되는데, TSCL은 이를 시니어들에 맞 춘 '고령층 소비자물가지수(CPI-E)'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응답자의 68%가 CPI-E 기준 적용을 지지했다.

셰넌 벤턴 TSCL 디렉터는 "수년간 시니어들은 연금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호소해왔다"며, "만약 시니 어 5명 중 4명이 정부 통계보다 물가가 높았다고 느낀다면, 정부 수치가 아니라 COLA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니어들은 또한 후세대의 연금 재 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장세 부과 소득 상한선 폐지를 가장 선호하는 대 안으로 꼽았다. 현재 사회보장세는 일 정 소득 이상부터 부과되지 않는데, 이 로 인해 "고소득층이 공정하게 기여하 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벤턴 디렉터는 "사회보장제도 축소 는 불가능하다"며, "시니어의 4분의 3 가까이가 연금에 절반 이상 생계를 의 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수백만 명을 빈곤으로 내모는 일" 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62세 이상 시니어 305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920 명의 응답이 분석에 활용됐다. 조사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였다.

서울 집값 다시 꿈틀… 강북 한강벨트 상승 주도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성동·마포·광진구 등 강북 한강벨트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지 만 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다. 오히 려 준상급지인 성동·마포구 등까지 향 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경 계감에 이 지역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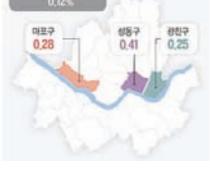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2% 올라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계속 둔화돼오다지난주부터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특히 성동구(0.27→0.41%), 마포구 (0.17→0.28%), 광진구(0.20→0.25%) 등 에서 오름폭이 가팔랐다.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 0.17~0.19% 수준에서 움직인 것과 비교하면 강북 한강벨트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경기도에선 분당 (0.28→0.34%)과 과천(0.16→0.19%)이 많이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 구위원은 "최대 6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는 대출 규제로 강남 진입이 어려워 지자 대체지인 마포·성동구 등에서 매 수세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수도권 외곽 위주인 데다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걸린다"면서 "대책이 집값 안정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 면서 다시 서울 아파트값이 주요 지역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에 매수세가 더 붙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 일 기자회견에서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한다"며 시 장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 카드를 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 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고,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을 종전 50%에서 40%로 강화했다. LTV 강화는 당장 강남을 타깃으로 했 다기보다는 규제지역 확대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성동·마포구에서 이달 들어 신 고가가 속출하는 등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면적 113㎡가 지난 13일 신고가인 26억5000 만원에 거래됐다. 14일에는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84㎡도 역대최고가인 25억3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전에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로 집을 사려는 매수 문의가 많다"며 "지방에 서도 올라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을 보면 송파구가 13.03%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 과천 11.93%, 성동구 10.50%, 강 남구 10.38%, 마포구 8.16%(한국부동 산원 집계)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6·27 대책으로 수도권 전체로 번졌던 집값 과열은 진정된 만큼 정부 가 당장 규제 카드를 꺼내기보다 시장 상황을 지켜볼 거란 분석도 있다.

또 국토부 장관에게 토허제 지정 권 한을 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해서 시간 이 걸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6·27 대책 이후 서울 거래량 자체는 급감한 상황"이라며 "성동·마포구 등한강벨트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이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토허구역을지정하기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기자

남가주 주택시장 혼조세

CAR 8월 통계 보고서

매매 3. 7% ↓, 가격 1. 2% ↑ LA지역 거래 둔화 두드러져 향후 금리 변동이 주요 변수

가주 주택시장이 매매가 감소하고 가격은 오르는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가 발 표한 8월 기존 단독주택 거래 통계에 따르면, 주 전체 매매는 총 26만4240채 로 전달 대비 0.9% 증가했으나 지난해 와 비교하면 여전히 0.2% 줄었다.

중간 주택가격은 8월 기준 89만9140 달러로, 7월보다 1.7%,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2% 상승했다. 큰 폭의 급등세는 아니지만,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가격이 지지되고 있다는 점은 지역별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신호로 해 석된다.

LA와 오렌지카운티(OC)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 역시 거래 감소와 가격 상 승이 동시에 나타났다.

지난 8월 남가주에서 성사된 주택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7% 감소했 다. 남가주의 집값이 여전히 높고, 이에 대한 금융 부담으로 구매자들의 진입 이 제한된 결과로 풀이된다. 가격은 전 년 대비 약 1.2% 상승했다.

LA만 놓고 보면 매매 둔화가 더 심

했다. LA지역에서 주택 거래는 전달 대비 16% 급락했으며, 1년 전과 비교 해서도 12.3% 감소했다. 가격은 93만 720달러로 전달과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각각 2.1%, 1.2% 올랐다.

OC는 매매가 7월 대비 4.3% 줄었으나 작년과 비교해선 1.4% 늘어났다. 집 값은 138만5000달러로 전달과 전년 동월 대비 1.1%씩 감소했다.

가격 상승 폭이 이전보다 완화한 것은 최근까지 높게 유지된 이자율에 수요가 감소하고 매물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8월 가주의 총매물 수는 전년 대비 23.5% 증가했다. 판매 완료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31일로, 지난해 같은 달의 22일보다 길어졌다. 이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고 협상 여지가 컸으며, 판매자들은 가격 조정이나 판매 전략을 수정해야했다는 의미다

한편 보고서는 LA·OC를 포함한 남 가주에서 향후 몇 달간 금리 변동이 가 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금리 가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구매 심리가 살아나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교통 접근성이 좋은 OC 일부 지역이 나 LA 도심 인접 지역은 수요가 유지 되며 가격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 는 반면, 외곽 지역이나 통근 여건이 불 리한 지역은 거래 감소와 가격 정체 가 능성이 있다. 우훈식기자





고소득 시니어 메디케어 숨은 비용 주의를…

메디케어 보험료 할증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거라 기대한다. 직장 시 절 사보험료나 개인 건강보험료와 비 교하면, 메디케어 파트 B 기본 보험료 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하 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은퇴자 는 상황이 달라진다. 매달 내는 보험료 가 기본료의 두세 배로 늘어나고, 연간 으로는 수천 달러 이상 더 빠져나갈 수 있다. 이 추가 비용이 바로 IRMAA다. 문제는 이 돈이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서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생활비 에서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은퇴 생활 을 계획할 때 IRMAA를 고려하지 않 으면 예상보다 큰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IRMAA를 정 확히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 요하다.

▶IRMAA란 무엇인가?

은퇴 후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누구 나 파트 B와 파트 D 보험료를 내야 한 다. 그런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 면 기본 보험료에 추가로 붙는 할증이 있다. 이것이 바로 IRMAA(Income-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다. 쉽게 말해, 고소득 은퇴자 일수록 메디케어 보험료가 더 비싸지 는 구조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IRMAA가 단 순히 은퇴 후 소득뿐 아니라 과거 소득 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 국(SSA)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통 2 년 전 세금보고 자료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2024년 보험료는 2022년 세금보고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이미 은퇴했더라도 직장생활을 마치기 직전 몇 년의 소득이 높으면 은 퇴 초기에 IRMAA 부담을 크게 느낄 수있다. 또하나주의할점은 IRMAA 가 MAGI(수정 조정 총소득)를 기준 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일반 과세소득뿐 아니라 비과세 이자 소득 같은 항목도 포함된다. 즉, 세금



소득에 따라 메디케어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시니어들이 간과하고 있다. 미리 계산하고 비용으로 감안하지 않으면 생활비용에 적잖은 영향 을받을 수 있다.

연간 수천 달러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자동 차감될수도 고소득자라면 Roth로 전환·QCD·HSA 같은 전략 고려해야 QLAC 등 연금을 활용하면 RMD·IRMAA 부담 관리 가능

상 소득이 아닌 줄 알았던 항목까지 IRMAA 산정에 영향을 준다.

▶IRMAA 부담 정도는

기본 보험료만 내는 경우라면 메디 케어파트 B는 월 \$174.70, 파트 D는 플 랜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월 \$30~\$40 선에서 끝난다. 그러나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보험료는 가파르게 올 라간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이 \$110,000인 경우, 파트 B 보험료는 \$244.60으로 늘 고파트D할증은 \$45.90이 붙는다. 합 치면 매월 약 \$290, 즉 1년이면 \$3,500 이상이 추가된다. 소득이 \$135,000으 로 올라가면 월 \$415, 연간 \$5,000에 가 까운 추가 부담이 된다. 부부 합산 소 득이 \$300,000인 경우 두 사람 합쳐 서 매월 \$831, 연간 \$10,000이 넘는 돈

이 IRMAA로 빠져나간다. 개인 소득 이 \$400,000을 넘으면 월 \$666, 연간으 로는 \$8,000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 한다. 이 돈은 따로 청구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서자동 공제된다. 그래서 체감이 더 크 다. 연금이 줄어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비 여유가 예상보다 줄어드 는경우가 많다.

▶조정과 이의제기 방법

IRMAA가 무조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갑자기 줄어드는 상황 이 생기면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 표적인 경우가 은퇴, 배우자 사망, 이혼, 소득 급감 같은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 는 SSA-44라는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

세금보고 오류가 있었거나 일시적

으로 소득이 급등했을 때도 이의제기 를할수있다. 따라서 IRMAA가 부과 되더라도 본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줄어들 가능성 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IRMAA 줄이는 주요 전략

IRMAA는 결국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을 어떻게 관리 하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대표적인 전략이 있다.

먼저 Roth 전환 전략이다. 전통 IRA 자산을 Roth IRA로 옮기면 전환 시점 에는 소득이 커지지만 향후 인출은 과 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퇴 이후 필요한 생활비를 Roth에서 인출하면 IRMAA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전환 시점에 소득이 급등하면 오히려 IRMAA가 튈수 있으므로 은퇴 직후 소득이 낮은 해에 나눠서 실행하는 것 이 유리하다.

다음은소득분산이다. 큰 금액을 한 해에 몰아 인출하면 MAGI가 튀어 오 르고 IRMAA도 즉시 상승한다. 따라 서 여러 해에 걸쳐 인출을 나누는 방식

으로 소득을 균등화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그외 HSA와 같은 세금우대 계좌 활용, IRA에서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QCD)'을 활용한 기부 전 략, 세금 효율적인 ETF나 뮤추얼펀 드를 활용하거나 손실 상쇄(Tax-loss harvesting)를 통해 과세소득을 줄이 는 투자전략 조정 등을 통해 간접적으 로IRMAA를낮출수있다.

은퇴나 배우자 사망 같은 이벤트가 생기면 바로 SSA에 보고해 재산정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금 활용 전략

연금은 IRMAA 관리에도 유용 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연기형 연금을 활용하면 소득을 뒤로 미룰 수 있고 Roth 기반 연금은 인출 시 세금이 없어 IRMAA에도 잡히지 않는다.

특히 소득을 일정하게 분산하는 '소 득 스무딩 전략'에 연금은 효과적이다. 여러 개의 연금을 Laddering 방식으 로 가입해 시작 시점을 달리하면 매년 안정적인 수준의 인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특정 해에 소득이 갑자기 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QLAC(Qualified Longevity Annuity Contract)를 이용하면 전통 IRA나 401(k)에서 의무인출(RMD)을 85세까지 미룰 수 있어 70대 중반~80대 초반의 IRMAA 부담을 줄이는 데 도 움이된다.

IRMAA는 고소득 은퇴자라면 반 드시 고려해야 할 숨은 비용이다. 매달 수백 달러, 연간 수천 달러씩 연금에서 빠져나가다 보면 생활비 계획에 차질 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IRMAA는 단 순히 피할 수 없는 부담이 아니라 전략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다.

Roth 전환, 기부 전략, 세금 효율적 투자, 연금 활용 등 여러 방법이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계획하는 것이다. 은퇴 전후로 세금과 소득 구조 를 잘 설계한다면 IRMAA 부담을 크 게 줄이고 은퇴 생활의 재정적 안정성 을높일수 있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국제 금값 연일 신기록 행진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에 23일 장중 3800불 돌파

금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주요 인사 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따른 정책금리

인하기대감이 금 가격을 밀어 올렸다.

23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시카고 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 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GCZ5)은 전장 결제가(3,775.10달러) 대비 32.60달러

(0.86%) 오든 트로이온스(1ozt=31.10g) 당 3807.70달러에 거래됐다.

미셸 보먼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 장은 이날 "수개월간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한 것을 확인한 만큼, 연방공개시 장위원회가 노동시장 역동성 감소와 나타나는 취약성 신호를 해결하기 위 해 결단력 있고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금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22일 태국 방콕의 금 매장에서 금 판매자가 금 시계 팔찌 의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로이터]





주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투표에 종교 영향, 56%가 '조금' '전혀'

복음주의 '매우' '상당히' 51% ... 영향력 가장 커 49% "작년 대선에 하나님 관여 안했다" 응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워싱 턴 DC 성경박물관에서 열린 종교자유 위원회 2차 공청회에서 교육부가 공립 학교 내 기도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지 침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공교육에서의 종교자 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위 대한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종교가 필 요하다. 나는 그점을 강하게 믿는다" 며 "우리나라 건국의 유대교·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 생들이 "반종교적 선전을 주입받고 있 다"고 주장하며 새 지침을 예고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이나 시기는 공개 하지 않았다. 학생 개인의 자발적 기도 는 현재도 헌법에 의해 보장돼 있다.

행사에는 파울라 화이트 백악관 신 앙자문위원과 팸 본디 법무장관 등이 배석했으며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 부 장관의 기도로 마무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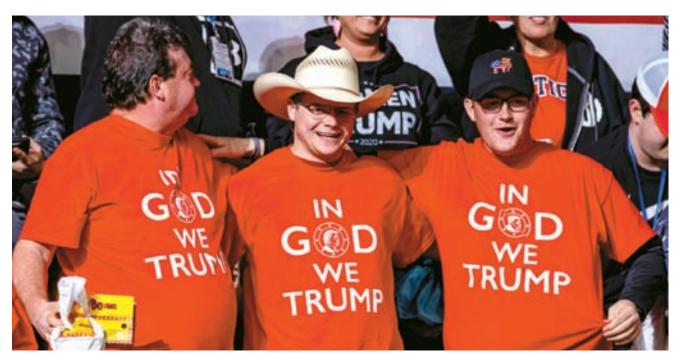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항상 기도 의 힘을 믿어온 나라"라며 "자유와 주 권,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황금시대 의 시작점에 있다"는 말로 연설을 마치

고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연주 되는 가운데 퇴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워싱턴DC 범죄 억제를 위한 주방위군 투입과 반기독 교적 편향 제거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권리는 신이 아닌 법과 정부로부터 나온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팀 케인 상원의원을 "무능하다"며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폭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복음주의 목사 는 교원노조가 "우리 아이들을 장악하 는 아주 은밀하고 악마적인 방식을 조 장한다"고 규탄했고, 방송인 필 맥그 로는 "우리는 모두 종교·문화 전쟁의 전투원"이라며 싸움에 동참할 것을 촉

회의에서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요(Jesus Loves Me)'라고 쓴 마스크 착용을 금지당했다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미시시피주의 학생 리디아 부 스 등 젊은 기독교인들의 증언도 이어 졌다. 오후 세션에서는 이스라엘-하 마스 전쟁 이후 불거진 반유대주의 문 제와 보수적 가치와 종교적 관점이 공 교육에서 억압받는다는 주장 등이 제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에서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의 63%는 트럼프의 당선이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의 일부라고 응답했다. 2020년 대통령선거 에서 종교적 구호로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기됐다. 무슬림 활동가 사미라 문시는 LGBTQ+ 도서 수업에서의 학부모 면 제권 보장을 요구하며 "무슬림은 종교 적으로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외부인 취급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이후 여러 판례를 통해 공립학교 내 기도를 대부 분 금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 이 일부 주에서 종교를 교실에 다시 도 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

난해 루이지애나주는 전국 최초로 공 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사본을 비치하 도록 의무화했으며 올해는 아칸소와 텍사스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회의는 종교 자유를 보호한다 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종교 특권을 확 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 이 나왔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은 정교분리 원칙을 수호하겠다며 반 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버 변호사는

"학교에서 안전과 환영받는다는 느낌 이 못 받는 학생은 학업에 집중할 수 없 다"고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행정명령 으로 종교자유위원회를 출범했으며, 8월에는 연방 공무원의 종교 표현권을 재확인하는 메모를 발표했다. 위원회 의 다음 회의는 29일 다시 한 번 '공교 육에서의 종교 자유'를 주제로 열릴 예 정이다. 안유회 객원기자

인간의 보편적 심적 상태의 자발적 표현



물리적 실재와 상관없이 신이 존재한다고 믿으면 실재와 똑같이 영향 미쳐

신비주의(神秘主義)는 19세기 서구 에 동양의 종교가 알려지면서 탄생한 비교종교학적 개념이다. 인간이 궁극 적 실체와 합일되는 체험을 할 수 있 는사상을 말한다.

즉, 초자연적이나 오컬트(occult, 숨 겨진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적인 사 상이나 현상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신비주의는 체험(experience), 수행 (practice), 사고(thought)를 통틀어 말하는 개념이다. 신비체험으로는

임사체험이나 유체이탈 등의 다양한 종교체험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 기도 한다.

진정한 의미의 신비주의는 신비적 합일체험(mystical union)을 말한

즉, 나와 신적인 존재 혹은 우주 전체와 합일하는 경험으로써 나와 세계가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나라는 개체성은 사라지고, 신과 하나가 됨 으로써 나 자신이 신 혹은 궁극적 실 체임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중용에 서 발하는 전명지위성(大命之謂性) 심)에 따르면 모두가 '한마음'이 된 다는 사상과 맥락이 같다.

기독교의 신과의 합일, 불교의 공 (空)과무아(無我), 도교의 물아일체

(物我一體),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사상 등이 신비주의에 속한다.

오르페우스 교단의 사상은 부활 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비밀스 러운 의식을 행했고, 의식을 통해 감 정의 공동체적 합일, 즉, 미메시스를 체험하다고하다.

플라톤도 이 교단의 영향을 받았 다. 오랜 방황을 거쳐 하느님(그리스 도교신앙을 의미)과 영혼(영혼을 중 시하는 플라톤 철학과의 만남을 의 미) 안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아우구 스티누스는 '영혼'을 아는 것이야발 즉, 하늘의 뜻인 본성(本性, 선한 양 로 자기 자신을 아는 길이라고 역설

그는 인간을 "죽을 운명의 현존 육 비교종교학적 입장에서 오르페우 체를 사용(짐승, 식물, 육체를 의미) 스 교단의 미메시스(mimesis, 모방), 하는 이성적 영혼(일자, 지성, 영혼 을의미)을향유할수있는존재"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다분히 신플라톤

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는 또 한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이 성적 실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영혼을 중시하는 그리스 철 학의 영향과 함께 영혼과 육체를 분 리하지 않는 헤브라이즘의 영향을 받 은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논리적으로 그 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논쟁을 자주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교 도 대전'을 집필하기 전까지, 유럽의 성인은 아우구스티누스였다.

플로티노스는 신 플라톤주의자로 서 플라톤이 주장한 이원론. 즉, 진 실한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에만 존재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에 빠졌다.

스승인 플라톤은 현상세계는 이데 아계의 그림자 같아서 불완전하다고 주장했기에, 성령(聖靈) 같은 신과 일반 영혼(靈魂)의 대화를 어떻게 설

한국 기업 미국 진출시.

미국 시장 진출전 지역 정하시기 전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 한국 기업 전문 •

승경호 (K Soung)

주거용 부동산 경험 • 구매자 · 판매자 · 투자자 대상 전략 제공

(AKBFF) - 0사

부동산 에이전트 / 부동산 컨설턴트

버지니아 주, 워싱턴 D.C. 메릴랜드 메트로 지역

미국 Realty One Group Captal 미전국 8위 기업

상업용 부동산 경험 • 멀티레스토랑 운영 공간 확보, 물류·유통 창고 암대 및 계약 진행

■ 한국 스타트업 및 ۱୮, 바이오 기업 미국 진출 지원

Korea-US Entrepreneurship' 패널

■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거래 경험 풍부

■ 워싱턴 D.C. 메트로 네트워크 활용 가능

■ SBA, NNN, TI 등 상업용 부동산 금융 · 계약 컨설팅 Innovation Highways: Strategies for Successful

• 한국기업/개인 대상 미국 시업 확장 및 부동산 전략 자문 가능

■ 상업용 부동산: 시무실, 리테일, 창고/공장 임대·매매

■ 주거용 부동산: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콘도 매매 · 임대

■ 국제 투자자 자원 한국 기업/개인 미국 진출 부동산 컨설팅

■ M&A (Wharton School) ■ 시업 확장 관련 부동산 자문

명할지가 난감했다. 그들이 생각해 낸 것은 유출설이다. 즉, 완전한 이데 아 세계에서 참된 영혼의 세계가 먼 저 만들어지고, 다음으로 흘러넘친 것이 현상세계를 이루었다고 주장했 다.

즉, 현상세계는 이데아 세계에서 영혼이 흘러넘친 후에도 이데아 세계 의 영혼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 다.

즉, 관념의 세계가 현상의 세계와 중간자를 두고 상호작용한다고 했다.

신 플라톤수의자들은 현상세계에 존재하는 나의 정신이 이데아계로 직 접들어갈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몰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신의 몰입이 관념의 세계와 현상세계의 자기 자신 을 하나로 만든다는 고대 신비주의의 합일 사상을 신봉했다.

기업 컨설팅

미국 전역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디씨

용도부터 시설 설비, 기업 컨설팅

모두 도와드립니다

사람이 머무는 곳이 집 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 집 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될 그 집, 제가 함께 찾아드립니다.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웃음이 모이고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당신의 다음 미소가 피어날 집, 지금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월 임대료: \$34,500

워싱턴 D.C. 물류창고 매매 스프링필드 소재 23,000 SF 창고 임대

- · 총면적: 23,000 SF
- · 드라이(상온) 공간: 약 16,000 SF

· 냉동 공간: 약 5,000 SF · 로딩 도크: 총 4개

· 위치: 버지니아 스프링필드, Fullerton Road

냉동 및 드라이 공간이 결합된 효율적인 창고 시설입니다. 4개의 로딩 도크를 갖추고 있 어 물류 작업에 적합하며, 주요 고속도로 접근성이 뛰어나 뛰어난 입지를 자랑합니다.

회사 본사나 시립학교 건물

월 임대료에는 NNN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500,000

레스턴 중심부의 3,7에이커 부지 위 3층 규모

사무용 빌딩, 회사 본사나 사립학교로 적합합니다.

- · 넓은 주차장(138대 가능)
- · 다양한 편의시설(카페테리아, 체육관, 다수의 주방, 야외 휴식 공간)
- · Reston Town Center 및 Dulles 공항과 가까운 뛰어난 입지 · 임대보다 소유 비용이 35% 이상 저렴하여 투자 가치도 높음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14,600대/일 차량 통행, 뛰어난 가시성과 접근성!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총 건물 7,182sqft / 토지 0,33에이커, NNN투자물건

연 임대수익 약 \$180,000, 연 3% 임대료 인상

9년 이상 계약 잔여(2034년 만료)

Cap rate: 6% 안정적 장기 임대수익 보장

\$3,000,000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애비뉴 인근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만나게 리스팅상담하실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ONE REALTYONEGROUP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 입니다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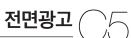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직업

거주/활동 지역

브로커리지

활용 포인트



박끝목독산비키리

집 팔려니 고민되시니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긴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이자가 6%대로 많이 내렸습니다. 이자가 더 내리면 집 값이 더 올라갑니다. 집시실 바이어들은 때를 잘 잡아야 미리 계획을 세우네요. 투자용 주택을 장만해 노후 은퇴 자금으로 활용 하실 분들은 연락주네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상담 해드립니다.

매릴랜드, 디씨 집 관리 힘드시죠. 임대면허증, 카운티 인스팩션, 래드 인스팩션 다 관리해드립니다. 세입자와의 분쟁 해결해드립니다. 임대주택관리 17년 경력의 노하우!

RENT

싱글 홈, 스프링필드 (애난데일 부근) 방3, 화2, 즉시 입주

\$3,600

아파트, 디씨 NW 하워드 대학부근 아파트 방1,화1 \$1600

\$1,600

급매 페어팩스에서 가장싼 타운하우스 챈틸리 as Is 급매

\$300,000 (일대 \$1,800)

힘든 세입자나. 밀린 랜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기리 부동사

전화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이야기



드림부동산 부사장

리스의 종류와 캠차지

여러 형태에 따라 비용과 조건 규모 달라 세입자 책임 위주의 NNN 리스 살펴볼만

자기 건물을 구입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되는 재산세는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되돌 모든 비즈니스 오너들의 꿈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건물 가격과 여러가지 여건상, 리스로 사업을 시작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이때 리스의 종류와 그에 따른 장단점 알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리스의 종류를 나눠 보면 Gross, Modified and NNN으로분류될수있습니다.

Gross 리스는 건물주가 재산세 및 건물 보 수 유지에 관한 모든 비용을 책임 지는 형태로 주로 아파트, 상업 용 오피스 건물에 많이 볼 수 있는 리스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형태의 리스계약 이지만 일반 상가 건물 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형태의 계약입니다.

Modified 리스는 주로 상업 용 창고 건물 과 오래된 상가 건물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계약으로 건물주가 재산세를 책임지고 건물 의 유지 및 보수는 세입자가 책임지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NNN 리스를 설명 드리자면 우 선 각각의 N은 Net을 뜻 하는 의미 입니다. 일반적으로 트리플 넷 리스라고 불리우고 있 습니다.

우선 첫번째 N은 부동산 재산세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건물 관리 비용에서 가 장큰부분을찾이하는부동산재산세를세 입자가 책임 진다는 의미 입니다. 이때 주의 해야 될 부분은 건물의 매각 시 새롭게 책정 는 형태의 계약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극명

한 대조를 보인다. S&P500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지만,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코어 채

권'(국채, 우량 회사채, 상업용 주택저당증권 등)

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미국 외 시

선동석으로 안선자산 중심인 재권 시상은 죄 근에는 일시적 반등 이후 방향성을 잃은 모습이

다.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을

동시에 겪는 '소프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은 둔화 조

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미·중무역협상 일정 연기가 불확실성을 더했다.

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아 올수 있으므로 리스 계약을 할 때 일정 부 분 이상의 재산세 상승분은 새로운 주인이 부담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N은 건물 보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물에 일어 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 하는 것으로 세입자의 재산을 보호 하 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는 건물 내부의 본 인 자산을 보호 하여야 된다면 따로 세입자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세번째 N은 건물 관리 비용을 뜻하는 것 입니다. 건물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서 건물 청소 용역비, 공동구역 유틸리티 비 용, 건물 유지 보수를 위한 예비비 등이 있습 니다.

NNN 리스에서 건물 관리 비용을 일반적 으로 CAM (Common Area Maintenance) charge 라 부르며, 기본 렌트에 CAM Charge가 붙는 계약을 NNN 리스라 합니 다.

일반적으로 기본 렌트 비용의 20~25% 정 도의 CAM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나 몇몇 지역과 고급 상가 건물은 CAM 비용이 베이 스 렌트보다 같거나 클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Absolute Net Lease' 또는 NNNN 리스라 해서 건물관리에 있어서 건 물의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건물에서 일 어 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세입자가 책임지

부동산 이야기



'오퍼튜니티 존' 비과세 혜택

특정 지역 사회 개발 촉진해 경기 활성화 양도소득세 납부 유예로 장기 투자 유도

저성장과 지역 불균형은 이제 전 세계 모두가 고민하는 숙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내놓 은 '오퍼튜니티 존(Opportunity Zones)' 제 도는 단순한 정책을 넘어 자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투자자에게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세법 개정안(Tax Cuts and Jobs 대한 비과세다. Act of 2017)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시행 8년 차에 접어들며, 그 효과와 한계가 명확하게 드 러나고 있다. 핵심은 '오퍼튜니티 펀드(Opportunity Fund)'라는 독특한 투자 방식에 있다. 정부나 은행이 아닌, 개인이나 회사가 직접 조성하는 투자 기구로 이 펀드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모인 자금의 최소 90% 이 상을 오퍼튜니티 존 안의 자산에 투자해야 한 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자의 자금 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개발과 사업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

오퍼튜니티 존투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세 금 혜택을 제공한다. 첫 번째 혜택은 이미 발 생한 자본 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유예 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6개월 안에 오퍼튜니티 펀드에 재투자하면 세금 납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미룰 수 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시점에서 이익을 재투 자하더라도, 2026년 말에는 미뤄뒀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 이 혜택은 이제 사실상 기 간이 얼마 남지 않아 그 이점이 크게 줄어들 었다. 과거에는 이 기간 동안 펀드를 5년 이상 보유하면 10%의 세금 감면을, 7년 이상 보유 하면 1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기간을 충족할 수 없어 이 혜택을 받기 어 렵다. 이와 달리, 현재 오퍼튜니티 존 제도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혜택은 새로운 이익에

펀드에 투자한 후 그 투자로 인해 새롭게 발 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펀드에 대한 투자를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 비 과세 혜택 덕분에 오퍼튜니티 존은 여전히 장 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투자처이다.

뉴욕 맨해튼 상가를 100만 달러에 팔아 50 만 달러의 자본 이득을 얻은 김민준 씨가 있 다고 가정해 보자. 2025년 8월, 김 씨는 이 이 익을 오퍼튜니티 펀드에 재투자했다. 2026년 12월 31일이 되면 김 씨는 처음에 미뤄뒀던 50 만 달러의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 야 한다. 5년 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 에 세금 감면은 없다.

하지만 김 씨는 펀드를 통해 투자한 건물을 10 년 이상 보유하기로 했다. 그 동안 건물의 가 치가 200만 달러로 올랐고, 김 씨는 150만 달 러의 새로운 이익을 얻었다. 이 시점에 건물을 팔면, 김 씨는 새로 발생한 150만 달러의 이익 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알렉스 조이너의 **마켓 나우**

미 금융시장, 단기 불안 속 장기 전망 밝다

과의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고, 기업 실적이 예상 로 해석되며 단기적 주가 상승을 자극한다. 그러 보다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었 나 정부 지출 확대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며 기 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확산 하였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 대도 주식 랠리를 뒷받침하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는

낙관론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모습도 관찰된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 리한 불확실성은 자금 이동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시장으 로 관심을 돌리며 대안 투자 처를 모색하고 있다. 2025년 들어 S&P500보다 높은 수익

률을 기록한 지역도 있었는데, 동유럽 신흥국 시

수익은 구조적 성장보다는 단기 테마와 정책 효 과에 기댄 경우가 많았다. 유럽 방산주와 은행주 급등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미국 시장의 구조적 강점 이 여전히 뚜렷하다. 세계 최대 경제 규모, 높은 1 인당 소득, 다변화된 산업 구조, 민간 부문의 활 력은 미국만의 장점이다. 특히 기업의 적극적 투 자와 연구개발(R&D) 지출, AI와 첨단 기술 확산 을 통한 생산성 개선은 미국이 장기적 성장 우위 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투자자들 을 촉발했다. 일부 투자자는 은 단기적 변동성과 기회를 구분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존재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구조적 강점이 있는 미국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 국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단기 변동성에는 유연하 게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IFM인베스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MD 리쿼스토어, 세탁소 리스팅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완 410.303.0452

金田

전화주세요!



443-759-9798

전면광고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애난데일 703-354-1515

양료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부모님이 좋아하실 선물은 역시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더2+인 이 성능 및 이 기쁜 더~더욱 이



크기는 줄이고 기술은 완벽하게 콤팩트한 헬스케어 로봇, 팔콘SV 작은 공간에도 문제없이 콤팩트하게! 헬스케어 로봇의 더욱 다이내믹한 마사지감! *천연가죽 사용으로 강해진 내구성! 신제품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월넷 우드 패턴' 디자인! 입고 기념

첫 발을 뗐다 마침내자유 팬텀 로보!

관절에 문제 있으신 분들께 마사지와 자전거타기 운동을 동시에!!



PHANTOM RO

















REMNER

새로운 기술!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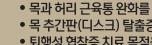
Medical PHANT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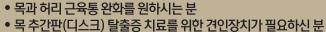
안마의자인가 의료기기인가

바디프랜드의 전신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료기기가 되다!

- * PEMF 전자기장으로 근육통 완화!
- 목 디스크 지료를 위한 견인!
- 퇴행성 협착증 치료를 위한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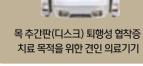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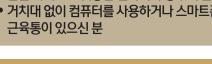


-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장치가 필요하신 분
-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일하거나 공부해 근육통이 있으신 분
- 거치대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해



OFF







오래된 안마의자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바디프랜드만의 새로운 기술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속시원히 할인해 드립니다.



드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율 1위 차지

2020년형 업그레이드 일월대트의 자부심 안전한 참자리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흙표 흙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게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전면: 고급 인조 양털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흙표흙매트

싱글사이즈

\$899

버지니아 워싱턴 월딘 지정 대리점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제작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돌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토헬스 🏴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3 간단 편리한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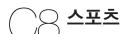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u>퀄리티</u>~



건식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7도 건강을 채우고 따로를 뚜세요~









미국팀 에이스 스코피 셰플러.

[로이터] 라이더컵 갤러리는 짓궂고 시끄럽기로 유명하다. 23일 진행된 미국팀의 연습 라운딩에서도 갤러리들이 성조기를 들고 응원하고 있다.

[로이터] 유럽팀 에이스 로리 매킬로이.

[로이터]

조롱에는 '선수'… 유럽의 또다른 적 '뉴욕 관중'

"일곱, 여덟, 아홉, 열…." 2019년 뉴 욕주 롱아일랜드의 베스페이지 골프 장 블랙코스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 (PGA) 챔피언십에서 갤러리가 입을 모아 세르히오 가르시아의 웨글 횟수 를 셌다. 가르시아의 슬로플레이를 대 놓고 조롱한 것이다. 뉴욕의 스포츠 팬 들은 짓궂고 시끄럽다.

오는 26일 같은 장소에서 미국과 유 럽의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이 개막 한다. 2023년 로마 원정에서 유럽에 11.5-16.5로 참패한 미국이 복수를 벼 르고 있다. 베스페이지 블랙은 매우 어 려운 코스다. 1번 티에 "극도로 어려우 니 숙련자만 플레이하라"는 경고 표지 판이 붙어 있을 정도다.

미국 주장 키건 브래들리는 러프를

깎고 전장을 줄이는 등 홈팀에 유리하 게 코스를 세팅할 계획이다. 미국의 장 타 선수들이 러프에서도 버디를 쉽게 잡을 수 있게 하려는 전략이다.

이번 라이더컵의 최대 변수는 갤러 리다. 베스페이지 블랙은 '피플스 컨트 리클럽'이라 불릴 정도로 대중적인 골 프장이고, 뉴욕 팬들은 조급하고 불안 정한 성향으로 유명하다. 비싼 티켓값 을 치른 만큼 시끄럽게 응원하거나 선 수를 조롱할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 게 다가 유럽 선수들은 '민감한 귀'를 가 졌다. 타이렐 해튼, 셰인 로우리 등은 다혈질이고 관중 반응에 민감하게 반 응하는 경향이 있다. 로리 매킬로이 는 지난 대회 당시 미국 선수의 캐디와 싸웠고, 로버트 매킨타이어는 지난달

미·유럽대항전라이더컵 26일 뉴욕 개최, 미국 설욕전 갤러리들 선수 조롱 다반사

BMW 챔피언십에서 관중과 말다툼했

전문가들은 관중이 미국의 '13번째, 14번째, 15번째 선수'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특히 미국이 초반 앞서갈 경우 관 중의 에너지와 엉켜 폭발하면서 일방 적인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 비해 유럽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가 장 눈에 띄는 게 가상현실(VR) 헤드셋 을 활용한 관중 야유 대비 훈련이다. 실 제 경기에서 들을 수 있는 각종 야유

와 방해를 미리 체험하는 것이다. 매킬 로이는 "VR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지는 상상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사실 관중효과는 양날의 검이 될수도 있다. 미국이 초반 부진하면 조급한 뉴욕 팬 들은 오히려 자국 선수들에게 야유를 보낼 수도 있다. 술취한 관중의 무질서 한 행동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브래들리는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 를 전 경기에 출전시킬 계획이다. 안정 적인 러셀 헨리와 한 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팬들을 열광시킬 수 있는 캐릭 터의 브라이슨 디섐보도 중용할 전망 이다. 유럽 주장 루크 도널드는 존 람-해튼, 매킬로이-토미 플리트우드, 빅터 호블란-루드빅 오베리 등 검증된 조합 을 활용할 예정이다. 2023년 우승 멤버

11명을 그대로 유지한 연속성이 유럽의 가장큰무기다.

초반 포섬 세션도 중요하다. 2021년 휘슬링 스트레이츠에서 미국은 포섬에 서 6승2패를 기록하며 대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2023년 로마에서 유럽 은 포섬에서 7승1패를 거두며 압승했 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미국 승리를 예 상한다. 개별 선수의 실력도 미국이 우 위인 데다, 최근 10차례 대회에서 홈팀 이 9승을 거둔 압도적인 홈 어드밴티지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브래들리는 가르시아의 웨글을 세 던 그 뜨거운 관중이 유럽 선수들의 그 민감한 귀를 제대로 건드려주기를 기 대하고 있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MLB 탬파베이 17억불에 팔렸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인수

김하성(29)이 이달 초까지 소속됐던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 구단이 새 주인을 찾았다.

AP통신은 22일 메이저리그 구단주 총회에서 탬파베이 구단이 부동산 개 발업자 패트릭 잘둡스키가 이끄는 그 룹에 매각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 인했다고 전했다.

매각 금액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 았으나 17억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알 려졌다.

1998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함께 메이저리그 막내 구단으로 창단

MARYLAND

한 탬파베이는 2005년 창립자 빈스 나 이몰리로부터 월스트리트 투자자 출신

끝난 뒤 팀명을 데블레이스에서 레이 스로 변경하며 이미지 개선 작업을 펼 쳤다. 전력 강화에도 힘을 쏟은 탬파베 이는 2008년과 2010년, 2020년, 2021년 4차례에 걸쳐 아메리칸리그(AL) 동부 지구 1위를 차지했다.

2008년과 2020년 월드시리즈에도 올랐지만, 필라델피아 필리스, LA 다

성적은 올렸지만, 스몰마켓 구단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탬파베이는 올 시즌 선수단 연봉 총 액이 8190만달러로 30개 구단 중 애슬 레틱스와 마이애미 말린스에만 겨우 앞선 28위다.

시즌 관중은 78만6750명으로 역시 28위다.

탬파베이는 서재응(2006~2007년), 류제국(2007~2008년), 최지만(2018~ 2022년), 김하성(2025년) 등 한국 선수 들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탬파베이의 매각 절차는 2주 이내 에 완료될 예정이며 새로운 구단주 잘 룹스키는 새 홈구장 부지를 물색 중이

김하성 10경기 연속 안타 애틀랜타는 9연승 행진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 스의 내야수 김하성(29·사진)이 10경기 연속 안타를 쳤다.

애틀랜타는 24일 조지아주 애틀랜 타의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워싱 턴 내셔널스와 홈 경기에서 11-5로 이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 성은 4타수 1안타, 볼넷 1개와 2득점을 기록했다. 최근 10경기 연속 안타, 12경 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간 김하성의 타율은 전날과 같은 0.257(152타수 39 안타)을 유지했다.

김하성이 MLB에서 10경기 연속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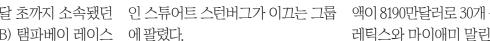
타를 친 것은 2023년 8월 이 후 이번이 2년 1개월 만이다.

당시 김하성 은 16경기까지 연속 안타 행 진을 이어갔다.

이는 추신수가 2013년 달성한 한국인 빅리거 연속 경기 안타 기록과 동률이

최근 9연승을 내달린 애틀랜타는 74 승 83패를 기록,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5개 팀 중 4위를 달리고 있다. 이미 '가 을야구' 진출가능성은 사라졌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27) 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홈 경기 에 결장했다.



새 구단주 스턴버그는 2007시즌이

저스에 패해 우승하지는 못했다.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슡ℝ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岸村上村口下自

UNDER CONTRACT

Rockville MD

\$759,000

Elkridge MD

\$559,000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방4, 화3

Bethesda MD \$1,295,000 싱글홈 방4, 화2/1

Nottingham MD \$449,000

싱글홈 방3, 화2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Gwynn Oak MD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

\$419,000 싱글홈 방4, 화3

Columbia MD

타운홈 방3, 화2/1, 차고1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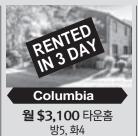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Jinny19619@yahoo.com



타운홈

싱글홈



방4, 화3/1, 차고1





방3, 화2



방3, 화2.5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What's the deal?; 무슨 일이야?

(Brad walks into Mike's office…) (브래드가 마이크의 사무실로 들어서는데…)

Brad: Are you ready for lunch? 브래드: 점심 식사하러 가도 돼? Mike: I'm going to cancel our lunch plans. 마이크: 우리 점심 약속 취소해야겠어.

Brad: What's the deal? 브래드: 무슨 일인데?

Mike: I need to look around for some office furniture. 마이크: 사무용가구를 좀 봐야겠어. Brad: What's wrong with what you have? 브래드: 지금 쓰는 것들에 문제가 있어? Mike: Nothing, I'm going to use it at home, 마이크: 아니. 지금 있는 건 집에서 쓰려고.

Brad: What are you planning to do? 브래드: 뭘 하려는 건데?

Mike: I'm setting up an office at home. 마이크: 홈오피스를 만들려고. Brad: Fill me in. 브래드: 자세히 설명 좀 해봐. Mike: I want to see if I can get an internet business

started. 마이크: 인터넷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한 번 해

기억할만한 표현

보는 거야.

▶*look around (for something): 둘러보다. 찾다.

"I have all afternoon to look around the mall." (저는 오후 내내 샤핑몰을 둘러봐야 해요.)

*set up (something): (무엇을) 시작하다. 개업하다 (또는 set something up).

"She is planning to set an important business up." (그녀는 중요한 거래를 틀 계획이야.)

*fill (someone) in: (누구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 주다.

낱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J	ŀ	도	Ē	4	ŝ	4	
						_	

(1)파도를 막기 위하여 항만에 쌓은 둑 (3)볼넷 과 몸에 맞는 볼. 삼진은 8개나 빼앗고 ~는 단 하나만 내주는 호투였다 (5)사기로 만든 국그릇 이나 밥그릇 (7)쌀을 이는 데에 쓰는 기구. 요즘 엔 거의 사용 안 하죠 (8)자동차가 1리터의 연료 로 달릴 수 있는 거리 (10)손목에 채우는 쇠붙이 로 만든 형구 (11)술집이나 음식점 따위의 이름 (12)곡식 만 섬가량을 거두어들일 만한 논밭을 가진 큰 부자. 옛말에 천석꾼은 천 가지 걱정이 있고 ~은 만 가지 걱정이 있다고 했다 (14)말하 는 태도나 모양새. 그는 짐짓 선배를 놀려먹으려 는 후배의 어쭙잖은 ~가 그렇게 밉지만은 않았 다 (16)여든여덟 살 되는 해에 베푸는 잔치, 八 十八을 모으면 米(미) 자가 되는 데에서 생긴 말 이다 (18)미량으로써 중요한 작용을 하는 영양 소. A, B, C, D, E, K 등이 있지요. 과일에는 ~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20)나무를 찍거나 패는 연장 (21)종아리의 살이 불룩한 부분 (22)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24)어머니와 아들 (25) 억세고 질긴 근육 (27)먼저 와 닿는 차례 (28)땅 속의 빈틈을 채우고 있는 물

세로열쇠

(1)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네모반듯한 연 (2) 돌아 가신 날이 오면 고인을 기리며 음식을 바치어 정 성을 나타내죠 (3)윷놀이에서, 모나 윷을 이르는 말. 모세 ~를 치다 (4)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 우. 몹시 교활한 사람 (6)남의 비밀을 알아내어 다른 사람에게 일러 주는 사람 (7)몸집이 작은 종자의 말 (9)살이 쪄서 몸이 뚱뚱함 (11)옥으로 만든 국새 (13)돌이 많은 산골짜기에 흐르는 맑 은 시냇물 (15)야구에서, 타자가 홈 베이스까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친 안타. 홈런 (16)낚 시 끝에 꿰는 물고기의 먹이. 주로 지렁이, 새우, 떡밥 따위를 사용한다 (17)나이가 많은 사람 (18)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떡. 보잘 것없는 것. 싼 게 ~ (19)서민들의 생활 모습이나 민간 전설 등을 소재로 하여 그린 그림 (20)폭약 이 터지도록 불을 붙이는 심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 (23)은행나무, 벚나무, 이팝나 무, 느티나무, 양버즘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메타세쿼이아, 백합나무 등 (24)앞뒤 사실이 이 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 (26)등잔, 초의 이 부분에 불을 붙이죠

스도쿠

1	6	5						
					6			8
		4				6		3
	3			7	9		1	
7						3	4	
5		8		3				
			7	2			6	
		3						2
	2	7	1		4	5	3	

세계 이목집중된 중간선거.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전세절이 스로푸든 집 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 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 어 넣어야 합니다.

6	3	S	7	8	ı	L	2	9
2	8	L	S	9	6	3	L	Þ
L	9	Þ	3	Z	L	6	S	8
L	2	6	L	3	9	8	Þ	S
9	Þ	3	7	S	8	L	6	L
S	L	8	6	L	Þ	9	3	2
ε	S	9	L	L	Z	7	8	6
8	6	ı	9	Þ	S	S	L	ε
Þ	L	7	8	6	3	S	9	L

卆 소 ΙŻ 년 |Υ 챧 돌 尽 호 声 łΥ 占 12 상 玉 횬 **|**Y 귬 14 뒁 ÷ 品 扫 ļΑ 乜 늘 எ 유 뒁 호 눙 lπ 卅 1 넁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위싱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모바일 앱으로 손님 폰에 세일 광고 및 마케팅 문구 전송, 무제한, 무료"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WWW.WORLDBANKCARD.COM WWW.IMIDUS.APP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① 위성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에 무를 만나라 착추신경 지우를 다고 조를



-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 이력서 보내실 곳: carefreeland@gmail.com

구

<u>인</u>

광

ı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출독을 결의적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봅니다"



가기 0 기 에센니!!

Kmediarods.com

① 위싱틴 중앙일보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 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 🗓

571-239-6054

급배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세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311

Korean BBQ & Hot Pot 케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대형멕서기 **보시의**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에디케어 정무기 · 정성하 브럼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_622_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703-281-9660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콜롬비아복지센터에서 함께일하실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젼트구함,사무실제공,유/무경 험자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직원모집 모집부서:인사,자산,영업,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병가/휴가, 보험등 자격요권: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 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젼트에 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스패니 쉬)가능한유,무경험자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주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가능/월요일-금요일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구사해 야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 com으로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조건의연봉과베네핏

-유급휴일과유급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 지사약간명, 리셉셔니스트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엘리콧시티 Cafe June 직원모집 -바리스타 2명(전화 443-310-9247) -샌드위치스태프1명 (전화443-386-0515) 주말 근무 가능자, 신입/경력 모두 환영

19개월 남자 아기 돌봐주실분 구합니다.

입주가능 또는 출퇴근(풀& 파타임) 410-961-3012

파리바게뜨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케익데코분들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전화: 703-447-4683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운영. 널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 별무관. 직계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admin@eb3recruit.com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관 심있으신분지원부탁드립니다 서비스지역VA, MD, DC 메일: Sdmechanical.office@gmail.com

엘리곳시티 세탁소 바느질 유경험자 구함 풀&파타임, 배깅만하실분도구합니다. 410-926-3200

파사데나지역비빔밥캐리아웃같이일 하실분구합니다. 남녀모두환영 443-991-9331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주방,쿡(숙소제공가능) ▶443-420-3096

엘리컷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

장, 캐쉬어를 모십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골든 듀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JDSTAR 소독(Mr.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싱글/타운방렌트

메릴랜드뉴그랜드마트근처싱글홈 2층욕실딸린큰방,주방,가구,인터넷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저먼타운타운하우스전체렌트 방3,화3.5,10월1일부터입주가능 301-219-6030 (문자요망)

메릴랜드하워드카운티반지하전체렌트 방2,부엌,욕실,세탁실,출입문별도,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95,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메릴랜드그린벨트지역,조용하고교통편리 타운하운스 방하나 렌트, 즉시 입주 가능, 방세저렴

301-379-9660

495와 95번이 만나는 첫번째 EXIT, 메릴랜 드 대학 가까운 싱글홈 이층방 렌트, 즉시 입

301-385-3535 (문자 요망)

교통편리한메릴랜드실버스프링싱글홈 1층전체렌트, 방2, 화장실1, 주방,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별도, 즉시 입주 가능 (미용실 가능) 301-646-3127

메릴랜드 한오버 이층방 & 베이스먼트 방렌 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410-917-1262

엘리콧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층방렌트, 유포, 가구일체, 교통편리, 직장 인남자분환영

443-631-7866

사업체 매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곳으로 리모 델링비 절감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져/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자격증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간호사모집RN,LPN(풀타임,파트타임) 재택근무, 처우는 별도 협의

▶703-507-2492 (Mr. Bae)

ANNANDALE, VA 공인회계사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우대, 무경험자도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스펀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에이젼트구함 사무실제공,유/무경험자가능,VA&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 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업무경험자우대하며,체 계적인교육과안정적인근무환경을제공합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703-225-5500

이메일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보실분구함.유경험자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전화문의:703-622-7737

리셉셔니스트(이중언어필수)를 모십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조정가능(풀타임) 급여:인터뷰후조정가능

Email: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센터빌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위치,이민법사무실,I-140파일, 패러리걸(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가능, 컴퓨터사용가 능, 자격증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및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지역덴탈랩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센터빌)업무팀직원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근무시간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구합니다.

-경력자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직원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타임이중언어 사무직유경험 40k-50k 베네핏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곳: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사무 및 리셉션 직원구함 홈케어또는보험등유경험자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챈틀리지역물리치료병원에서 한국어/영어가능한 Recei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센터빌/챈틀리지역 임플란트전문치과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첨부govaepic@gmail.com ▶703-574-0528

경험자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져구합니다. 영어필수, 경험자페이우대

파리바게뜨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케익 데코분들모십니다. 301-312-2328

703-628-9168 (문자)

Ackfandb@gmail.com 프레데릭스버그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쉐프구합니다. 703-258-4356

구함. 유/무 경험자 환영 703-338-3037

에난데일일본라면가게에서 파타임홀직원

에난데일치맥에서 Server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문자)또는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주방, 쿡(숙소제공가능)

▶443-420-3096

Chimc.va@gmail.com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주방 헬퍼해주실분, 파타임 카운터 케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스토어RT1&234 야간근무가능하신분(11PM-7AM) 나이불문,남자분환영 703-291-7174/703-774-7443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조성수점장 ▶703-573-6300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푸드코트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점보인터내셔설 수퍼마켓 정육부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진료 과목

•임플란트

•충치치료 •전체/부분 틀니

•신경치료 •교정

•일반치과 •미용치과

●발치 •잇몸치료 •크라운 •임플란트 틀니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571-339-3628 571-339-3682

수요일: CLOSED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bigcirc 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중앙일보**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를 모십니다 일주일에 3,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테일러샵에서 바느질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타임가능하신분 703-328-3064

비엔나지역세탁소에서 파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카운터캐시어, 유틸리티워커 (영어가능자)

7am-3:30pm(월, 화, 목, 금) 4pm-7:00pm(월-토) 유경험자우대, 무경험자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쳐치 지역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구합니다. 첫째/셋째토요일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기타구인

가사도우실분을 찾습니다.

- -음식 잘하시는분, 세탁, 집안정리 -맥클린(VA) 지역
- -주5일또는파타임
- -하루6-7시간정도, 12시-7시, 12-8시

▶703-887-1037

입주가능 또는 출퇴근(풀&파타임) 410-961-3012

19개월 남자 아기 돌봐주실분 구합니다.

Office 청소하실분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센터빌)업무팀 직원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사인컴퍼니에서 일하실성실하고 꼼꼼하신 분.유·무경험자 703-499-0857

703-477-3114

건물관리인(월-토),스폰서가능 영어,전기,기계,목공모두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홈 렌트

GMU 대학체육관 뒤 조용한 싱글홈 전체 렌 트합니다. (웃슨 하이스쿨 학군) 방4,화2.5,차고2 703-350-2278

우드브릿지 3 Levels Townhouse렌트 \$2,400, 방3, 화장실3.5, 업그레이된지붕, 창문, HVAC, 탁트인 넓은 부엌, 2 Master Suit Bedroom(윗층), 펜스 있는 뒷마당, 감 나무가 있는 앞마당, 교통편리, 밝은 타운하 우스, 즉시 입주가능

페어팩스타운하우스 \$3,000 로빈슨하이스쿨근처 1,496sqft 전체렌트 방3,화3.5,11/5일부터 입주가능 703-470-1736 / 703-470-7066

조용한로튼(페어팩스)고급주택가 1층같은워크 아웃 지하전체 렌트합니다. 2,500 sqft, 방3개, 넓은리빙룸, 인터넷, 유틸리티포함, 냉장고, 세탁기, 마이크로 오븐 등주방시설, 출입분별도 703-478-4523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아랫층 과완전분리)렌트합니다. 방3,풀화장실,리빙룸,큰덱,큰창고,차고2 개,넓은 뒷마당,395/495/95 3분거리

애쉬번타운하우스렌트\$3,300 전체마루,차고2,덱,267/607 Briar Woods 하이스쿨학군

703-508-5405 (Julia Jin)

▶571-239-6054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하우스 렌트 2100 sqft, 방4, 화3.5, 워크아웃 베이스먼 트\$3,200 470-485-1875

1. 페어팩스 타운홈 \$3,300 방3,화2.5,차고1,End Unit, 편리한로케이 션,잘관리된집

2.센터빌타운홈 \$3,000 방3,화2.5,차고1,End Unit,업그레이드많 이함,굿로케이션

3. 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방2, 화2.5,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애난데일중심가 1 에이커싱글하우스 반지 하전체 렌트

방3,화2,키친,리빙룸,세탁기,입구별도, 주차넉넉,최근전부새로수리하였으며,전 화하면사진보여드림 703~395~4380

703-395-4380

패어팩스 Costco 뒤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군,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렌트 \$3,500 방3,화3.5,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콜린 파웰초,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바3 하3 5 2car 저브 마르 조차다스

방3,화3.5,2car,전부마루,주차다수 SouthCounty하이,RT95/395/286/123 ▶571-239-6054

센터빌롯데근처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콘도렌트

애난데일콘도\$1,500 방1,화장실1,고급스런나무마루,탁트인 넓은콘도,업데이트된부엌,계단없는 1층 나무가보이는넓은발코니,즉시입주가능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콘도 \$2,100 방2,화장실1,1,105 SF 넓은콘도, 13층으로탁트인조망,엘리베이터, \$100,000 가량수리하고업데이트한모델 하우스같은콘도,넓은새창문,최고급스런 부엌,넓은리빙룸,리모델한화장실,새페인 트,즉시입주가능 703-477-3114

매나사스콘도\$1,700 방1,화장실1,엔드유닛880 sf, 넓고 밝은 콘도,세탁기,건조기,새화장실,나무마루 거실,새페인트,넓은 발코니,코스트코에서 1분거리,즉시입주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근처콘도전체렌트 방1,화1,주차2,완전리모델링,모든가전 제품새것,즉시입주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헌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화2.5,차고1,이노베이션 메트로역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 고 교통요지

▶571-239-6054

- 1.옥톤싱글\$3,600,방5,화2.5,차고 2,2.5acre숲속,아름답고조용한 게이트있는집
-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 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렌트

스프링필드(Backlick & Braddock이 만나는곳) 조용한싱글홈 베이스먼트 방렌트워크아웃, 간단취사가능, 교통편리, 주차넉넉, 남자분 환영703-750-2795

GMU근처조용한동네싱글하우스욕실딸 린큰방하나렌트합니다. 남자분환영,즉시입주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가구 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 학생 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방 렌

애난데일 예촌앞 타운하우스 방 렌트합니다.

트, 나무 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성분 환영 고양이 괜찮으신분만 문의 바랍니다.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메시아장로교회뒤타운홈 2층 방하나렌트, 남자분환영 703-887-5173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싱글홈 윗층(아랫층 과완전분리)렌트합니다. 방3,풀화장실,리빙룸,큰덱,큰창고,차고2 개,넓은 뒷마당,395/495/95 3분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CVS 근처깨끗한싱글홈 2층 방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방렌트 또는 하숙하실분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거리, 방/화장실/부엌/ 세탁기모두 별도, 편리한 파킹 703-388-8518

페어팩스 웃슨 하이스쿨 건너편 타운 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1,키친,욕실,워크 아웃 571-643-8008

애난데일 한강식당뒤싱글홈 방렌트,주차 편리

703-395-4380/703-965-2343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싱글홈 1층 렌트 방1,화1,주방,여자분 환영 \$1,200 즉시 입주 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순복음교회앞주택지하렌트 방2,화장실,큰거실,부엌,방하나쓰실분 또는전체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싱글홈반지하방렌트놓습니다. 출입문별도,취사가능,여자분환영 571-213-9080

센터빌롯데근처타운홈이층욕실딸린큰 방하나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CVS 근처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 룸/개인욕실/워크인클로젯/여성분 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스프링필드(웨스트스프링필드 하이스쿨근 처)워크아웃타운홈베이스먼트전체렌트 합니다.가구일체/유포 703-887-8428

센터빌타운하우스베이스먼트세놓습니다 유포\$1,100

▶301-928-4125

사무실/점포렌트

애난데일오피스전체렌트 나무마루, Newer Windows, 계단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화장실, 넓은주차장, 교통 편리 \$2,000즉시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자이언트근처)오피스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던킨뒤환한오피스콘도 렌트 \$1,900,1,200sqft, 룸3개,화1,오픈스페이스,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지역오피스렌트 오피스전체 4 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센터빌벽돌타운하우스\$589,000 방3,화2.5,차고1HMART근처 29/28/66 Braddock

▶571-239-6054 1. 알렉산드리아콘도\$274,900

넓은 방2, 화1, 탁트인 넓은 뷰, 완전히 리모 델링한콘도, 새마루, 새부엌, 새화장실, SS Appliances 2. 레스톤콘도 \$499,900

고급콘도, 방2, 화2, 나무 마루, 잘리모델링 된 밝고 환한콘도, 새 페인팅, 업그레이드한 부엌과 화장실, 어메니티가좋음 3. 우드 브릿지 타운홈 \$410,000 방3, 화3 1/2, 잘관리된 밝고 환한집, 펜스 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지 붕과 창문, 히팅 & 에어컨시스템

도미니언밸리컨트리클럽, 헤이마켓럭셔리싱글\$1,699,000 1에이커숲속,6700 sqft, 방5, 화5.5, 3차고, 야외리조트스타일,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 레스롬, 인로우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시스템 Wolf/Sub Zero 주방, 커스텀 벽난로, 하드 우드바닥

\$460K 업그레이드(야외 주방, 벽난로, 연 못, 분소, 덱, 음향시스템등) 골프장, 클럽하 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군 ▶571-239-6054

1. 메릴랜드 베데스다싱글홈 \$1.295.000

703-813-8949

방4,화2.5 2.Gwynn Oak 메릴랜드싱글홈\$419,000

2. GWYIII Odk 메일덴드 성교음 \$419,000 방4,화3

▶301-318-4242

1.워싱턴 디씨듀플렉스 \$950,000 방4,화장실 4+1,차고1,새집,편리한교통, 모던하고예쁜집

2. 워싱턴 디씨 SE 타운 \$649,000 방5,화장실 3+1,새 타운 하우스,모던하게 지은 예쁜 집

방4,화장실2+1,차고2포토맥에위치한 잘꾸며진집,좋은가격 2. Nottingham 타운홈\$349,900 방4,화장실3,최근에전부새로고쳤으며, HOA가없는집

▶410-417-7080

1. 패어팩스싱글홈 \$999,000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구조와 잘가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꾸어진집, 벽돌, 마루 바닥 2. 패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비엔나싱글홈\$1,875,000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집, 편리한교통 4.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앤드유닛, 아주 밝 고이쁘게잘꾸며진집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콘도 \$460,000 방1,화1,1/2층오픈LOFT835 saft. 전부리모델링,나무마루 2. 맥클린콘도 \$409,000 방2,화2,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571-239-6054 Alexandria 콘도 \$365,000 방2, 화2, Top Floor 엔드유닛,

Metro, Tysons Gelleria옆

업데이트되고 잘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liance, Granite Countertops, Deck, 세탁기, 건조기 ▶703-813-8949

1. 센터빌싱글홈\$770.000 방3,화3.5,차고2,업그레이드부엌,마루, 넓은 뒷뜰 2. 패어팩스 싱글홈 \$1,005,000

방5,화3.5,차고2,최근에전체적으로 업그 레이드한집, 넓고고급스러운집 ▶703-899-8999

1.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2.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화2.5차고1,좋은동네,좋은학군,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3.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1. 패어팩스새 빌더홈 우슨 학군 싱글홈 \$1,900,000 2. 페어팩스씨티 타운하우스새 빌더홈

\$930,000 방3,화장실3,차고2 3. 챈틸리새 빌더홈콘도(2025년 완공예정) \$670.000 방3. 화장실2.5

4. 페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2025년 완 공예정)방3,화장실3

\$1,000,000 5. 챈틀리콘도 새 빌더홈(2025년 완공 예정) \$530,000 방2, 화장실2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화2단층집으로넓은백야드0.3에이커 프랜코니아지역으로교통, 생활시설 편리,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단 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계단 없슴. 2. 매나서스콘도\$330,000 방2,화2 주차공간 편리한콘도, 그로서리,병원,레스토랑,도서관등좋은생활

▶703-483-0505

사업체 매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곳으로 리모델 링비절감효과. 관심 있으신분 연락 주세요. 240-988-6868

델리샵(DC)\$150K DC내위치, 장사잘되는곳이나은퇴예정, 안정된수입,투자용 ▶703-625-9909

헤어, 네일&스파살롱사업체 매매 (레스톤/헌돈지역)

-\$100,000 - 현지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좋고지속성장가능

-월임대료&수도세없음** -6개 헤어부스+2페디큐어부스+2네일 테이블+1마사지룸+1왁싱룸 꼭관심있는분만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중고매매/기타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admin@eb3recruit.com

상태좋은남/여중고골프세트싼가격에팝 니다.

703-966-9072 (Mr.Kim)

부동산학교(5주속성반) 2025년 9월 16일(화)개강 한국식쪽집게수업,온라인수업병행,기본 컴퓨터교육, 합격후 10주실전교육, 자체제 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수업료\$350(교재비\$100) 703-899-8999/410-417-7080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악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애난데일H마트근처텃밭공유하실분 1평, 2평, 3평 517-318-1119

무빙세일 (센터빌) 다이닝테이블,쇼케이스그림,유로피안장식 품, 골동품, 청동으로된인어공주, 자수정수 집품, 강아지케리어 등등 808-223-4825

1년된 Inokim OX Scooter 공원에서서너번만사용해상태좋음,필요하 신분께저렴하게드립니다. 703-945-2991

각종류의 영어서류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교통국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시니어) / 주1회90분수업 -기초반/중급반/고급반

▶문의: 703-678-6639

▶수학개인과외합니다.(면대면 및줌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중,고등학교준비반)교육 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고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Email: inyeolchoi@hotmail.com

골동품이조가구진품그림, 한국가면고가판 매가능, 일본물건도 있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부엌,화장실,에디션,덱,팬스,지 붕제너럴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저희 회사의 자랑

스러운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JL CONTRATOR INC. 지붕고민/돈걱정그만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건축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욕실/전기설비,타일마루/루핑,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건축주방&욕실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페인트

▶571-331-6811

▶240-687-5155

하우스페인팅(In,Out),덱메인터넌스와 클리 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체자체라이센스보유, 책임보험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그외모든공사,주 정부라이센스보유,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 wani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보험

옴니화재사업체,자동차,집,의료,생명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메디케어/메디케이드보험 ▶703-862-5395

조은혜종합보험 메디케어&오바마케어신청접수/자동차/주 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로리문 맞춤형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장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유나이티드모기지네이션 - 낮은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410-370-4229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문제의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 심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지역 VA, MD, DC Email: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UNIVERSAL 히팅,에어컨가정용/산업용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 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JD 냉난방(Mr.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TEACHER

▶410-370-8057

▶ 문의:703-380-2282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케리아 웃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Mr. Chung)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K18,K14,K10,다이아몬드 고가매입

블라인드/카펫

▶703-988-0033 / 301-792-561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 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 의서비스, 합리적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AS 전단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모든샘풀가지고방문

▶703-600-9031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 우드/타일,주거용/상업용한번시공은끝까 지책임집니다.

▶703-909-0988

카펫 및에어 덕트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스 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풀청소. 응급수해복구 및 타일플로워 왁스

▶703-967-4155

SK플러밍 화장실,키친리모델링,온수,히터디쉬워 셔,Disposals,상하수도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 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냉동,집안밖물새는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배송서비스전문 -쓰레기/폐기물처리

571-982-9871/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이사짐(24/7) 빠른/책임/값이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Email: mimovingllc@gmail.com

정크8282각종딜리버리 소량이사전문,비지니스폐업,각종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등 처 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해운 정확한선택, 확실한만족,귀국이삿짐 포장이 사,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귀국,해외,타주,시내 이사,고품격포장.자체창고보관서비스한국

화물배송서비스 ▶703-339-8844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보험 확실한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포 장이사,타주,시내이사,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화재,가구,곰팡이)보험처리가능/용 접(철,스텐,알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닥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시공과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703-434-2810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의문제를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LLC 핸드레일,계단,계단손잡이전문 703-340-5858 (VA)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기술자,영어소통필수 973-997-5805 (엘렌)

443 -980 - 5858 (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소지, 전화상담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전기,카메라, DATA 24시간출장가능,

▶703-582-7757

JK유리 &Window/상점,가정용유리,거울 Frameless샤워도어Aluminum,Door설치, MD/VA/DC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페인트, 스테인)

-카펜터(캐비넷,코리안카운터탑제작) -프로젝메니져(이중언어) 높은페이와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중앙일보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내려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AWARDED

L&B Universal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페인트

Since 1988

- <mark>▶ 건축ㆍ시공 및 건물ㆍ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mark> <mark>▶상가 및 빌딩 신축ㆍ리모델링</mark>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mark>▶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mark> · 관리 대행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Call 24시간 가능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 목수, 타일, 마루, 덱, 캐비넷 샌딩 보수
- ♥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571.623.0255

Annandale

업 범망애운 귀국이삿짐/차량운송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무료겨전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USA(SAN DIEGO) USA(NEW JERSEY)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교려통운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USA(ATLANTA)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귀국 이사 전문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전문 포장 이사

20년 전문//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Golden Dew Jewelry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보 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다이아몬드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중앙일보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703-657-0944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상업용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703-813-8949 Huundai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03.380.228



JGL Construction Inc.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24 hours

'A-MD-D.C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한국산 Smart Curtain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703,994,2943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영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지하실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플러맹

- ◆ 수도꼭지 교체
- ◆ 씽크 / 디스포져
- ◆ 워러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썹펌프 교체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Young Lee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회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무료 방문} **703.600.9031**



CORE Physical Therapy&Rehab

통증 재활물리지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 · 목, 허리 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Lee Jackson Memorial Hwy.

28

Walney Rd.

김우기 통증+재활 물리치료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50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언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Meridian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세계 최초 카드 프로세싱 · Fintech · IT 창업 전문대학

① 카드 프로세싱 전문가 과정 (Fintech & IT Training)

- 전문 과정 수강료: \$5,000
- 카드 단말기·POS·온라인 결제 교육
- 교육 후 공인 카드 프로세싱 전문가 자격 취득
- 실습 과정 + 현장 배치 지원 안정적 수입

② 소액 창업자 & 투자자반

- 카드 프로세싱 회사 운영 기회 제공
- 창업 투자자금 약 \$50,000부터 가능 본사 지원으로 독립 지점 개설 가능
-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 기업 제품 판매 및 서비스 기회 결제 시스템 + 마케팅·운영·고객 관리 교육 제공

③ **비자 연계 창업 프로그램** (E-2, EB-5 Visa)

- E-2 비자: \$150,000~\$300,000 투자 → 투자비자 교육 프로그램 + 독립 지점 창업 지원 EB-5 비자: Million Dollar 투자 프로그램 (영주권 연계)
- 글로발 투자 이민 건설팅 회사와 투자 이민 전문 변호사 협력 지원가능 합법적 미국 체류 +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기회 제공
- ☑ 교육 + 창업 + 투자이민 원스톱 솔루션 제공

→ EB-5 프로그램 교육 과정 포함

♥ Liberty Bankcard(MPS) & Liberty University 전문 지원 ♥ 세계 1위 회사 (Worldpay.com) 서비스 제공하면서 안정된 고소득 창출하세요

문의 (424)332-3779 미전지역가늠

입학 설명회 및 ZOOM 미팅 예약번호: (424) 332-3779

'리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시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학장:사라 류박사

https://wikitia.com/wiki/Dr._Sarah_Sun_Liew 30년 프로세싱 경력,

영업학, 교육학, 설교학 박사 하버드 경영·교육·정치 대학원 Alumni MIT, Wharton,

Chicago Booth 경영대학원 수학 하버드, 아브라함(J.D.),

퍼시픽(J.S.D.) 법대원 수학

부학장 : 아브라함 이

30년 프로세공 중국, 경영학 박사 (전자상거래 & 금융),

매매

여자옷 소/도매 컨설팅 구인

머천다이즈와 바잉 가르쳐드립니다. 매상극대화 문의는 문자주세요.

(213)507-5258

알려드립니다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Columbus 오하이오 매상:110만불 이상/년 주인은퇴 E-MAIL TO:

Dental Lab 매매

본보는 그 내용에 대해 accutech614@gmail.com

한인사회 유일의 정론지 중앙일보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표전화 (213)368-2500

안내광고 대표전화 (213)368-2525



Dealer No 90-491972, Permit 007669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직접 캐오는 Wild Ginseng 입니다.

면연력 항암효과

까연산삼<u>의 호력</u> · 5~20년 \$600 · 20~30년 \$1,000 · 30~50년 \$1,500

문의 (571)236-8591



(213)800-3662 (213)407-4524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0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뼛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주택 구매자 조건

-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휘노 고메즈 씨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力병이 아니다! 치료전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설염 통증에서

Tel. 213.385,3304 Cell. 213.503

민물장어 판매

1249 Blalock Rd #201.Houston, TX 77055

(832)605-4890 - (281)501-2623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22일~12월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S.WesternAve,#100LosAngeles,CA90020 | TEL:213-272-6031

Exquisite All-Brick Colonial in Prestigious Kensington Square"



















Perfectly suited on a coveted corner lot in the prestigious Kensington Square community, this Renaissance-built "Jane Austen" model all-brick Colonial offers nearly 4,000 sq. ft. of refined living across three beautifully finished levels. A grand two-story foyer and soaring 10' ceilings set the tone, complemented by rich hardwood floors, exquisite custom millwork, and plantation-style wood shutters throughout. The main level features a high-end powder room and a well-appointed laundry room.

The updated gourmet kitchen is a chef's dream, showcasing quartz countertops, stainless steel appliances, a built-in undercounter wine refrigerator, gas cooking, brand new ovens, and a sunny breakfast nook. The kitchen flows seamlessly into both formal and casual entertaining spaces, anchored by a charming brick accent gas fireplace.

Upstairs, the luxurious primary suite boasts a tray ceiling, recessed lighting, a sitting area, and dual walk-in closets. The spa-inspired bath offers a soaking tub, jetted shower, and dual vanities. A loft with built-in desk and wall units provides the perfect home office or study space. Two additional spacious bedrooms share a Jack & Jill bath.

The fully finished lower level is an entertainer's haven, complete with a wet bar, expansive recreation room with gas fireplace, and a private guest suite. Exterior highlights include a side-entry two-car garage, iron-fenced backyard, patio, and Trex-style deck. The HOA covers landscaping, snow removal, and community amenities for a low-maintenance lifestyle.

Beyond its elegance and luxury, this home offers something truly special: a sense of peace and comfort the moment you walk through the door. Here, the stresses of the day melt away, replaced by warmth and tranquility. Whether enjoying a morning coffee bathed in sunlight or unwinding by the fireplace in the evening, this home creates an atmosphere where every day feels like a retreat.

All this, just minutes from Fair Oaks Mall, Fairfax Corner, Wegmans, Whole Foods, Reston and Fair Oaks Hospitals, and top-rated Fairfax County schools, with convenient access to Routes 50, 28, 29, Fairfax County Parkway, and I-66.

This is more than a home—it's a lifestyle of comfort, elegance, and joy!

Fairfax \$1,199,900



때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시실 분·경매)



Principal HIZ Z 703.244.6526





Hyundai of the East Tel:703.813.8949, 703.813.8150~5